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박사학위 논문

고등학교 EFL 학습자와 교사의  
영어 학습 신념 연구:  
학습 신념과 학습 성취도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이 유 정

고등학교 EFL 학습자와 교사의  
영어 학습 신념 연구:  
학습 신념과 학습 성취도의 관계

Highschool EFL Students' and Teachers'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and English Achievement

2014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이 유 정

고등학교 EFL 학습자와 교사의  
영어 학습 신념 비교:  
학습 신념과 학습 성취도의 관계

지도교수 김 경 자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이 유 정

# 이유정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류 관 수    (인)

위    원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선 규 수    (인)

위    원    영남대학교    교수    배 태 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자    (인)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 I. 서론

|                   |   |
|-------------------|---|
| 1.1 연구의 필요성 ..... | 1 |
| 1.2 연구의 목적 .....  | 2 |
| 1.3 연구 질문 .....   | 3 |
| 1.4 논문의 구성 .....  | 3 |

### II. 이론적 배경

|                                       |    |
|---------------------------------------|----|
| 2.1 외국어 학습 신념의 정의와 특징 .....           | 4  |
| 2.2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      | 5  |
| 2.2.1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 .....        | 5  |
| 2.2.2. 외국어 학습에 대한 교사의 신념 .....        | 7  |
| 2.2.3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 ..... | 9  |
| 2.3 외국어 학습 신념과 학습 요인의 관계 .....        | 9  |
| 2.3.1 외국어 학습 신념과 학습 동기의 관계 .....      | 9  |
| 2.3.2 외국어 학습 신념과 학습 전략의 관계 .....      | 10 |
| 2.3.3 외국어 학습 신념과 학습 불안의 관계 .....      | 11 |
| 2.3.4 외국어 학습 신념과 외국어 학습 성취도의 관계 ..... | 12 |

### III. 연구 방법

|                    |    |
|--------------------|----|
| 3.1 연구 참여자 .....   | 14 |
| 3.1.1 영어 학습자 ..... | 14 |

|   |    |
|---|----|
| 3.1.2 영어 교사 .....                         | 15 |
| 3.2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                | 16 |
| 3.2.1 학습자와 교사 신념 측정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   | 16 |
| 3.2.2 영어 학습 성취도 측정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    | 18 |
| 3.2.3 연구 참여자 배경 설문 .....                  | 19 |
| 3.2.4 학습자 인터뷰 문항 및 자료 수집 방법 .....         | 19 |
| 3.3 자료 분석 방법 .....                        | 20 |
| 3.3.1 설문 자료 분석 방법 .....                   | 20 |
| 3.3.2 인터뷰 자료 분석 방법 .....                  | 21 |
| <b>IV. 연구 결과 및 논의</b>                     |    |
| 4.1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신념 요인 .....            | 22 |
| 4.1.1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에 대한 양적 연구 결과 ..... | 22 |
| 4.1.1.1 제 1요인: 영어 학습의 성격 .....            | 23 |
| 4.1.1.2 제 2요인: 영어 학습의 적성 .....            | 26 |
| 4.1.1.3 제 3요인: 영어 학습의 용이성 .....           | 29 |
| 4.1.1.4 제 4요인: 영어 학습 전략 .....             | 32 |
| 4.1.1.5 제 5요인: 영어 학습의 동기 .....            | 34 |
| 4.1.2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 | 36 |
| 4.1.2.1 제 1요인: 영어 학습의 성격 .....            | 36 |
| 4.1.2.2 제 2요인: 영어 학습의 적성 .....            | 41 |
| 4.1.2.3 제 3요인: 영어 학습의 용이성 .....           | 44 |
| 4.1.2.4 제 4요인: 영어 학습 전략 .....             | 45 |

|  |        |
|--|--------|
| 4.1.2.5 제 5요인: 영어 학습의 동기 .....           | 47     |
| 4.2 영어 학습 신념 요인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 차이 ..... | 49     |
| 4.2.1 제 1요인: 영어 학습의 성격 .....             | 50     |
| 4.2.2 제 2요인: 영어 학습의 적성 .....             | 52     |
| 4.2.3 제 3요인: 영어 학습의 용이성 .....            | 54     |
| 4.2.4 제 4요인: 영어 학습 전략 .....              | 56     |
| 4.2.5 제 5요인: 영어 학습의 동기 .....             | 57     |
| 4.3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 58     |
| 4.4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 신념의 차이 .....   | 61     |
| <b>V. 결론</b>                             |        |
| 5.1 연구 요약 .....                          | 70     |
| 5.2 교육적 함의 .....                         | 72     |
| 5.3 연구의 제한점 .....                        | 73     |
| 5.4 후속 연구 제언 .....                       | 74     |
| 5.5 결론 .....                             | 75     |
| <br>참고문헌 .....                           | <br>76 |
| <br>부록 1. 학습자 신념 조사 설문지 .....            | <br>83 |
| 부록 2. 학습자 인적 사항 검사지 .....                | 85     |
| 부록 3. 교사 인적 사항 검사지 .....                 | 87     |
| 부록 4. 반구조화 인터뷰 문항 .....                  | 89     |



## 표 목 차

|        |   |    |
|--------|---|----|
| <표 1>  | 영어 학습 성취도 분반 도구 및 결과 .....                        | 14 |
| <표 2>  | 연구 참여 학습자의 성별 및 수준별 인원 .....                      | 15 |
| <표 3>  | 설문 문항 수정 사항 대조표 .....                             | 17 |
| <표 4>  | 영어 학습 성취도 측정 도구 분석 .....                          | 18 |
| <표 5>  | 영어 학습 신념 요인별 신뢰도와 기술통계 .....                      | 22 |
| <표 6>  | 영어 학습의 성격(F1) .....                               | 24 |
| <표 7>  | 영어 학습의 적성(F2) .....                               | 27 |
| <표 8>  |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                              | 30 |
| <표 9>  | 영어 학습 전략(F4) .....                                | 32 |
| <표 10> | 영어 학습의 동기(F5) .....                               | 35 |
| <표 11> | 학습자와 교사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 비교 .....                     | 49 |
| <표 12> | 영어 학습 신념과 영어 성취도의 상관관계 .....                      | 58 |
| <표 13> |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성취도에<br>미치는 영향 .....            | 60 |
| <표 14> |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br>신념 차이 .....              | 61 |
| <표 15> |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 영어 학습 신념<br>요인 차이에 대한 Tukey 검정 ..... | 62 |
| <표 16> |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영향을 받는 영어<br>학습 신념 문항 .....          | 64 |
| <표 17> |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 영어 학습 신념<br>문항 차이에 대한 Tukey 검정 ..... | 66 |

# ABSTRACT

## Highschool EFL Students' and Teachers'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and English Achievement

Lee, Yu-Jeong

Advisor: Kim, Kyung-Ja, Ph.D.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Korean high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beliefs and compare their English learning beliefs with their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beliefs. The study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tudents' beliefs on their English achievement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beliefs depending on the English proficiency levels. A total of 300 students(160 boys, 140 girls) and 17 teachers(11 male, 6 female) at a highschool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taining 35 items about the English learning beliefs. Two hundred fifty-four students' final English exam scores were used to measure their English achievement.

The study identified five underlying constructs: nature of learning English, aptitude for learning English, difficulty of learning English, strategy for learning English and motivation of learning English. Students believed that it was difficult to learn English but anybody could learn it. However, they believed that they didn't have good ability to learn English. They had extrinsic motivation toward learning English for an entrance exam to a college and getting a job. Some beliefs of the students corresponded with teachers', but the

others did not. The items that students' beliefs agreed with teachers' were about the importance of acquiring rich vocabulary, memorizing and repeating for learning English. But the items about the importance of learning English culture and their own English ability showed disagreement between the students and teachers. The factors of aptitude for learning English, difficulty of learning English, strategy for learning English and motivation of learning English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tudents' achievement. The factor of difficulty of learning English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students' achievement. All factors except nature of learning English ha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level: advanced, intermediate, beginning. Based on the findings,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to improve English instruction were suggested.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영어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열 또한 대단하다. 영어 과목에 있어 정규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이루어지지만 이보다 훨씬 앞선 유아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은 물론 심지어 태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8년에서 10년 정도의 영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해 자신들만의 어떠한 생각 즉, 개인적인 신념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풍부한 어휘 습득은 중요하다’, ‘영어의 네 가지 활용 능력 중에서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신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학습자의 신념은 학습 동기(Kim, 2000; Oxford & Nyihos, 1993), 학습 전략(Abraham & Vann, 1987; Horwitz, 1987, 1988; H. Kim, 2001; K. Kim, 2001; Park, 1995), 학습 태도(Mantle-Bromely, 1995), 학습 성취도(Huang & Tsai, 2003; H. Kim, 2001; Mantle-Bromely, 1995; Mori, 1999; Peacock, 1999) 등 여러 가지 변인들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학습자들은 어떠한 사항에 있어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다. Horwitz(1987)는 학습자가 부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신념을 갖게 되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신념뿐만 아니라 교사의 신념 또한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 외국어 학습과 지도에 있어 교사의 신념은 교실 수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Allen, 2002; Banya & Cheng, 1997; Horwitz, 1985; Johnson, 1992; Kern, 1995; Peacock, 2001). 따라서 외국어 교사의 신념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 내고, 교사의 수업 설계와 효과적인 수업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Peacock(1998)에 따르면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신념이 상충할 때 학습자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학습자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잃게 되어 수업 활동에 소극적 참여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와 교사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들의 신념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자의 학습 신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 비해,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한국인 고등학생과 교사의 신념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김경자, 2011; 천호재, 2008; Kim, 2013).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은 여러 연구(남정미, 2013; 신의정, 2002; Ehrman & Oxford, 1995; Horwitz, 1998; Huang & Tsai, 2003; H. Kim, 2001; Kim, 2006b; Mantle-Bromely, 1995; Peacock, 1999, 2001)에서도 밝혀졌다. 영어 학습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들이 특정한 영어 학습 신념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영어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들이 높은 반응을 보이는 특정한 영어 학습 신념이 있었다. 따라서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영어 학습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 신념 차이를 밝혀 그들의 학업 성취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그들의 신념은 어떠한지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들의 영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습자들의 학습 신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영어 학습자 집단과 영어 교사 집단의 신념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다. 또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확인된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은 그들의 기말고사 영어 점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로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1.3 연구 질문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1. 한국인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신념은 어떠한가?
2. 한국인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신념과 그들의 교사가 인식하는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은 차이가 있는가?
3.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은 그들의 영어 학습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신념은 그들의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4 논문의 구성

이 연구를 위해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외국어 학습 신념과 학습자 및 교사의 신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제 4장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설문 연구를 통해 그들의 영어 학습 신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과 영어 학습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 신념의 차이를 확인한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교육적 함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라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연구에 대해서 논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외국어<sup>1)</sup> 학습 신념의 정의와 특징

Richardson(1996)에 따르면, 신념이라는 용어는 사실로 느끼는 세상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나 전제, 명제를 뜻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신념이라는 용어는 언어 학습 신념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신념의 정의는 다양하다. 여러 학자들은 언어와 언어 학습 과정의 본질에 있어서 신념을 ‘학습자의 언어 학습에 대한 선입견, 의견, 근거 없는 믿음’(Horwitz, 1987), ‘언어 학습에 대한 기대’(White, 1999), ‘언어 학습에 대한 가정’(Piper, 1994) 등과 같이 초인지적인 지식(metacognitive knowledge)으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많은 학자들이 학습자의 신념을 초인지적인 지식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하였지만, Flavell(1979)은 초인지적인 지식과 신념이라는 각각의 용어는 학습자의 다른 인지적 시스템을 칭하므로 두 용어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Wenden(1999)은 신념은 초인지적 지식과 비교하여 더 가치 지향적이고 지속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신념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신념이란 언어 학습에 임함에 있어 학습자가 가진 생각이나 태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학습자 신념 연구 시스템은 학습자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기 때문에(Wenden, 1986, 1987) 인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의 신념은 외국어 습득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Naiman, Frohlich, Stern과 Todesco(1978)는 좋은 언어학습자는 자신들 주변의 언어에 대해 중요한 의식을 가져야하며 그 의식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Gardner(1985)는 문화적인 신념은 외국어 숙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능, 언어적 적성, 동기 그리고 불안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acIntyre와 Gardner(1989)는 학습자의 부정적인 기대와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외국어 학습 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Abraham과 Vann(1987)의 모델에서는 학습자가

---

1) 외국어란 제 2언어(a second language)와 외국어(a foreign language)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학습이라는 용어는 영어 학습을 포함한다.

전략을 사용하여 성취를 하는데 있어 언어적 신념이 전략과 성취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유사하게 Bialystock(1978)의 전략 모델은 학습자의 목표언어에 대한 지식이 다른 유형의 전략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Canale과 Swain(1980)의 의사소통능력 모델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의식을 내적과정의 정의적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의식은 학습자 신념 체계의 한 부분이며, 이 의식은 상위인지(metacognition)를 포함하고 개념적 지식과 상호작용한다. Ellis(1994)는 언어 학습에 대한 신념, 정의적 상태 그리고 일반적인 요인을 개인차를 구성하는 세 요인으로 보고 이것들이 학습 전략 및 학습 결과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2.2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 2.2.1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

몇몇 연구자들은 문화적 배경과 학습자 신념에 대한 사전경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외국어 학습 환경을 비교, 연구하였다. Horwitz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학습자의 신념(1987)에 대한 연구에서 최초로 언어 학습에 대한 신념 검사 도구(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ventory, BALLI)라는 설문지를 고안하여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 요인을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 (1) 외국어 학습에 대한 적성(foreign language learning aptitude)
- (2) 외국어 학습의 어려움(the difficulty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 (3) 외국어 학습의 본질(the nature of language learning process)
- (4) 외국어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learning and communitive strategies)
- (5)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기대(motivations and expectations about language learning)

Truit(1995)은 204명의 한국인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의 신



념과 ESL 학습자의 신념(Horwitz, 1987), 외국어를 배우는 미국인 학습자의 신념(Horwitz, 1988) 그리고 중국인 EFL 학습자의 신념(Yang, 1992)을 각각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점을 찾아냈다. 연구 결과,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도구적인 동기가 높은 반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ESL 학습자들이나 외국어를 배우는 미국인 학습자와 비교하여 외국어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과 총체적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 영어 교육 시스템 그리고 두 나라에서의 영어의 역할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비교에서는 많은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영어 능력에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인 학습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신감을 보였다.

Horwitz(1999)는 각기 다른 문화권의 학습자들이 가진 신념의 차이점들을 연구하여 학습자가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가 각자 가지게 되는 신념 차이의 중요한 요소가 됨을 밝혔다. 훗날, Diab(2006)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어려운 점과 동기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은 학습자가 처해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연관이 있다는 Horwitz의 생각을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Sandra, Nathalie와 Robert(2009)는 캐나다, 일본, 프랑스의 6천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각 세 나라의 언어 학습 신념의 차이를 밝혀냈다. 일본인 학습자들은 제 2언어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그러한 신념은 그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비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로써 신념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하에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학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자 신념에 대한 조사는 학습 신념과 제 2언어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다양한 문화권의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신념을 비교하여 알아보고자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신념에 있어서 성별이나 전공 분야와 같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학습자의 배경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Horwitz, 1999). 명백하게 학습자의 언어 학습에 대한 신념은 그들의 여러 가지 배경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연관될 수 있다. Truitt(1995)은 한국인 학습자의 전공과 외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외국어 말하기의 자신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냄으로써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이외에도 언어 학습에 관한 학습자의 신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경요소들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2.2.2 외국어 학습에 대한 교사의 신념

학습자의 신념뿐만 아니라 교사의 신념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교사의 신념과 가치는 교사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즉, 교사는 자신이 교육 받았던 것을 토대로 신념, 지식 그리고 경험을 형성하여 그들의 교수 활동과 교수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Horwitz(1988)는 교사는 자신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대로 학생들이 행하도록 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사의 이전 경험은 그들의 교실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한국의 대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Kim(2011)의 연구에서도 교사 신념의 원천은 교사 자신의 학습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라고 하였다.

학습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더불어 교사에 대한 학교의 기대, 학생의 기대 그리고 교사로서의 교직 경험 또한 교사의 신념에 영향을 준다. Feryok(2008)은 다른 문화내의 다른 기대가 인식과 실제 사이에 차이를 만들며, 이러한 차이는 교사로서 하여금 그들의 생각과 학생 기대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Chin(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은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며 완벽주의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그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원어민 교사들은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 실수는 필수적이며, 그들의 역할은 학생이 대화에 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교사의 신념은 그들의 행동에 상당히 깊은 영향을 준다. Clark과 Peterson(1986)은 교사의 행동은 그들의 신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학생 행동과 교사의 신념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학생의 행동과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Peacock(2001)은 교사는 자신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방법을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 행하기를 바라므로 의사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교사의 신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Gibson과 Dembo(1984) 역시 개인의 신념은 특정 행동과 행동에 따른 결과를 낳으며, 만약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행동과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낮은 교수 효능감을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을 동기화 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며, 수동적이고, 노력도 덜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영어교사의 효능감 신념에 대한 Shim(2006)의 연구에서 교사가 목표언어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

이 없으면 효율적으로 수업을 전달할 수 없고, 그 결과 교사의 효능감 수준도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가 느끼는 효능감은 수업 개선, 학생의 감정, 영어에 있어서의 자신감, 교실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교사의 영어 능력에 따라 효능감에 대한 신념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의 신념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신념은 실제적 교수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가 교실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바탕이 된다. 즉, 교사의 신념은 교사의 교수 활동에 핵심 기준이 되며, 교사의 행동에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chards와 Lockhart(1994)는 교사의 행동은 교사의 지식과 신념을 반영하며, 이는 교사의 교실 활동을 안내하고 이끄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Drum(1984)은 문제풀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신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사의 나이, 성별, 경력, 교사 연수에 따른 문제풀이에 대한 교사의 신념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젊은 교사보다 나이가 든 교사가,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경력이 적은 교사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가, 교사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보다 가입한 교사가 문제풀이를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Lee(2007)의 연구에서도 역시 젊은 교사보다 나이가 든 교사 특히, 40대 교사가 문제풀이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력이나 학위, 교사 연수가 문제풀이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음이 밝혀져 Drum(1984)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Kim(2011)의 연구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들은 학생들의 언어 실력 향상을 위해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믿으며, 이에 따라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실수를 하는 것은 학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은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실수를 허용하는 분위기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학생이 스스로 노력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자신들은 정원사(gardener), 지휘자(conductor), 산파(midwife), 비계설정자(scaffolder), 코치(coach), 안내자(guide)로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념은 그들의 모국에서 겪었던 학습 환경, 교육에 대한 훈련 및 경력을 통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Tsui(2003)는 교사의 교실 활동은 교사의 지식과 신념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지식과 신념은 교사가 학습했던 경험의 산물이므로 개인적이며 독특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2.3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을 비교하여 서로의 신념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 중요한 연구들이 있다. Kern(1995)은 프랑스어 학습자들과 교사들의 신념을 비교하여, 학습자들의 신념 중 우월감, 언어에 대한 적성, 연습의 필요성, 추측 전략의 사용은 교사의 신념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발음, 오류 수정 그리고 문법 규칙 학습의 중요성에 관한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였다. Banya와 Cheng(1997)의 연구에서는 대만의 EFL 학습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 두 집단은 영어 학습에 관해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이완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대부분 새로운 어휘의 암기, 문법, 번역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amimy와 Lee(1997)가 34명의 학습자와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훗날 Peacock(1999)이 202명의 학습자와 45명의 대학 ESL 교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결과 또한 이전의 Kern(1995)과 Banya와 Cheng(1997)의 연구 결과와 같다. 즉,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신념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어휘 암기와 문법 규칙에 대한 신념을 가진 학습자들은 교실 수업과 과제에서 어휘와 문법 학습을 강조하지 않는 교사에게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다고 하였다. Peacock(2001)은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의 어려움, 더딘 진전, 외국어 학습의 실패로 인해 자신감의 결여, 좌절, 불만족이 야기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3 외국어 학습 신념과 학습 요인의 관계

### 2.3.1 외국어 학습 신념과 학습 동기의 관계

Gardner(1985)는 동기를 “노력에 언어 학습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과 언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가 더해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문화적 신념은 학습자 동기의 원천이며, 그것은 곧 언어 학습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

라고 하였다. MacIntyre, Baker, Clément와 Conrod(2001)는 동기는 “특정 과업을 행함에 있어 학습자의 행동 기저에 깔린 심리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은 학습자의 동기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Horwitz(1987, 1988), Oxford와 Nyikos(1989)는 학습자의 동기는 명백한 신념 및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므로, 학습자의 신념과 동기는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Dörnyei(1998)는 학습자의 제 2언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부족, 부정적 태도, 학습의 강제성 등을 제 2언어 학습의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Horwitz(1990)는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것을 기대했던 학습자는 본인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되며, 이 때 자신의 실패를 교수 방법이나 자신의 능력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Oxford와 Shearin(1994)은 제 2언어 습득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는 그들의 노력, 목표의 매력성 정도에 대한 인식(valence),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expectancy), 목표 성취에 대한 자신의 능력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목표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 상당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학생들은 언어 학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낮은 성취도는 자신들이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념을 갖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언어적 적성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보아 학습자 신념과 동기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3.2 외국어 학습 신념과 학습 전략의 관계

McGroarty와 Oxford(1990)는 학습 전략은 성공적인 언어 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알맞은 학습 전략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Yang(1992)은 대만인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신념과 전략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언어 학습에 있어서 자신감과 기대에 대한 신념은 모든 학습 전략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능 연습 전략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자신이 영어 학습에 소질이 있고 영어를 아주 잘 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학습자들은 영어를 실제로 말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것

이다. 또한 영어 말하기 학습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신념은 형식적인 구두 연습 전략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영어 말하기에 있어 반복과 연습 및 정확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습자는 원어민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며 영어 학습에 있어 유창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Wenden(1987)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제 2언어 상급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 25명의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념과 학습 전략에 대해 연구하여, 학습자의 분명한 신념은 학습 전략의 선택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학습자가 의사소통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창성인지 정확성인지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는 요인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보아 학습자 신념과 학습 전략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3.3 외국어 학습 신념과 학습 불안의 관계

불안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의적 요인 중 하나이다. 외국어 학습의 불안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의사소통시의 불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사회적 평가 불안, 학습 결과나 평가에 대한 불안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Horwitz, Horwitz, & Cope, 1986; MacIntyre & Gardner, 1989), 이러한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안들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appamihel(2002)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언어 학습 불안은 언어 학습을 방해하며,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며, 언어 학습 불안은 낮은 자기 효능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여 더욱 높은 불안을 낳는다고 하였다. 또한 ESL 학습자에게 있어 학업 성취와 언어 학습 불안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Kim(2009)은 회화 수업과 읽기 수업에서 EFL 학습자들의 불안 정도를 연구하고, 여성 EFL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과 영어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높은 불안감은 EFL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오류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하였다. Truitt(1995)은 한국인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 학습 신념과 외국어에 대한 불안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불안으로 인하여 특정 신념, 말하기에 있어서 자신감 결여, 영어 사용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자기 효능감 및 자신감에 관한 신념은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Bailey(1983)는 촉진적 불안은 외국어 학습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쟁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여 불안이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은 학습자의 학습 신념이 불안과 부적인 혹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 2.3.4 외국어 학습 신념과 외국어 학습 성취도의 관계

Horwitz(1988)와 Mantle-Bromely(1995)는 제 2언어 학습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학습을 방해하여 마침내 그들의 제 2언어 학습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Mantle-Bromely(199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 학습에 있어 부정적 신념을 가진 학습자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영어 공부를 한다면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기까지 2년이 걸린다고 하였고, 언어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적성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Ehrman과 Oxford(1995)는 자신이 언어 학습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학습자들은 제2 언어 학습에 있어 말하기와 읽기 활용 능력 성취도 또한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Park(1995)은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 신념을 연구하여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은 TOEFL 성적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학습 전략과 학습 신념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Mory(1999) 역시 EFL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 학습 신념과 성취도의 관계를 측정하여, 일본어 학습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학습자가 일본어 학습 성취도 또한 높다고 하였다. Peacock(1999, 2001)은 중국인 EFL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 신념과 학습 성취도의 관계를 연구하여, 언어 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수업 중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불만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므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Huang과 Tsai(2003)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진 학습자들은 낮은 학업 성취도를 가진 학습자보다 제2 언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제2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 학업 성취 수준에 따른 신념의 차이를 증명하였다. Kim(2006b)은 학습자의 언어 학습 신념은 학습 전략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학습

자의 언어 학습 과정이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송고은(2013)은 한국인 EFL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과 TOEIC 성적은 유의한 관계를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Kym(2008)은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가 낮은 학습자들은 외국어 학습이나 외국 문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학업 성취가 높은 학습자들은 외국어 학습이나 외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Kim(2001)의 한국인 EFL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 신념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음( $r = -.07$ )을 밝힌바 있다. Tanaka와 Ellis(2003)는 Horwitz의 BALLI와 TOEFL 성적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영어 학습 신념과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두 요인은 굉장히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이 학습자의 신념과 제 2언어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제 2언어 성취도에 의해 학습자 신념이 변화하는지 혹은 학습자의 신념은 학습 환경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한국인 EFL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Ⅲ. 연구 방법

#### 3.1 연구 참여자

##### 3.1.1 영어 학습자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은 총 300명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 상·중·하반으로 나누어진 학습자들이다. 수준별 학급은 2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 월중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토대로 하여 나누어졌다. 중간고사는 5월, 월중고사는 6월, 기말고사는 7월에 치러졌으며, 각 고사는 모두 객관식 문항 70%와 서술형 문항 30%로 이루어져 있고, 객관식 문항은 듣기 및 말하기 문제와 읽기 문제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각 80분, 월중고사는 50분 동안 치러졌다. 전교생은 448명이지만, 고사별 결시생이 발생하여, 중간고사에 447명, 월중고사에 446명, 기말고사에 448명이 응시하였다.

<표 1> 영어 학습 성취도 분반 도구 및 결과

|          | 응시자  | 49점<br>이하     | 50 -<br>59점  | 60 -<br>69점  | 70 -<br>79점  | 80 -<br>89점 | 90점<br>이상   | 평균   | 표준<br>편차 |
|----------|------|---------------|--------------|--------------|--------------|-------------|-------------|------|----------|
| 중간<br>고사 | 447명 | 237명<br>53%   | 73명<br>16.3% | 66명<br>14.8% | 37명<br>8.3%  | 31명<br>6.9% | 3명<br>0.7%  | 48.9 | 18.9     |
| 월중<br>고사 | 446명 | 191명<br>42.8% | 52명<br>11.7% | 83명<br>18.6% | 68명<br>15.2% | 32명<br>7.2% | 20명<br>4.5% | 56.3 | 19.4     |
| 기말<br>고사 | 448명 | 321명<br>71.6% | 57명<br>12.8% | 45명<br>10%   | 14명<br>3.1%  | 7명<br>1.6%  | 4명<br>0.9%  | 41.1 | 16.9     |

각 고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점수구간 인원수는 <표 1>과 같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상 수준 101명, 중 수준 263명, 하 수준 84명의 학생으로 총 열여섯 개의 수준별 학급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열여섯 개의 수준별 학급 중 18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열두 개 학급의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와 같이 상 수준의 4개 반 학습자 101명, 중 수준의 4개 반 학습자 115명, 하 수준의 4개 반 학습자 84명 참여하여, 본 연구는 상·중·하 수준의 학습자들이 비교적 고루 분포해 있는 집단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연구 참여 학습자의 성별 및 수준별 인원

|    | 상  | 상   | 상  | 상  | 중  | 중   | 중  | 중  | 하  | 하  | 하  | 하  |
|----|----|-----|----|----|----|-----|----|----|----|----|----|----|
| 남  | 27 | 28  |    |    | 29 | 29  |    |    | 25 | 22 |    |    |
| 여  |    |     | 28 | 28 |    |     | 30 | 27 |    |    | 18 | 19 |
| 총원 |    | 101 |    |    |    | 115 |    |    |    | 84 |    |    |

본 연구 참여자 중 학습자의 평균 연령은 만 16.7세이고, 남학생 160명(53.33%)과 여학생 140명(46.67%)으로 구성되었다. 300명의 연구 참여자 중 208명(69.33%)이 영어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5시간 이하의 영어 학습시간을 가지며, 단지 45명(15%)의 학습자만이 자신의 영어 능력이 좋은 편이거나(37명) 아주 좋다(8명)고 평가하였다. 또한 영어 습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 선생님(122명, 40.67%), 자율학습(100명, 33.33%), 학원 및 과외, 인터넷 강의(50명, 16.67%), 참고서(23명/7.67%), 기타(5명/1.67%)순으로 답하였으며. 영어로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참여자는 223명(74.33%)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 습득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항목으로 듣기 및 말하기(190명, 63.33%), 영어독해(84명, 28%), 영미문화(15명, 5%), 영작문(8명, 2.67%), 영문법(3명, 1%)순으로 응답하였다.

### 3.1.2 영어 교사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습자들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영어교사로 평균 연령은 39.4세이고, 남교사 11명(64.71%)과 여교사 6명(35.29%)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경력은 1년 미만(2명, 11.76%)부터 16년 이상(7명, 41.18%)까지 다양하다. 이들 중 8명(47.06%)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실력을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단지 1명(5.88%)만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습자들의 실력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어 습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 선생님(7명, 41.18%), 자율학습(7명, 41.18%), 기타(2명, 11.76%), 학원 및 과외, 인터넷 강의(1명, 5.88%) 순으로 답하였으며. 영어로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참여자는 15명(88.24%)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 습득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항목으로 듣기 및 말하기(13명, 76.47%), 영어독해(2명, 11.76%), 영미문화(1명, 5.88%), 영작문(1명, 5.88%) 순으로 응답하였다.

## 3.2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 3.2.1 학습자와 교사 신념 측정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학습자 신념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Horwitz(1987)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녀는 외국어 학습자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34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답하는 BALLI라는 설문지를 고안해냈으며, 그 설문지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외국어 학습자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Horwitz, 1987, 1988; Kern, 1995; Mantle-Bromely, 1995; Mori, 1999; Rifkin, 2000),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EFL 학습자와 ESL 학습자 그리고 교사의 신념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신념은 학습과 지도 그리고 성취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BALLI는 EFL 학습자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하고 믿을만한 도구라고 여겨지고 있다.

오준일(1992)은 Horwitz의 BALLI를 이용하여 한국인 학습자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오준일의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시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이므로 이를 이용하였다. 단, 몇 가지 문항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교실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Horwitz의 BALLI와 비교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문항 수정 사항 대조표

| No. | BALLI 문항  | 수정 문항                                 |
|-----|---|---------------------------------------|
| 3   | some languages are easier to learn than others.   | 영어 습득이 다른 외국어 습득보다 쉽다.                |
| 17  | The most important part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learning vocabulary.                    |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 습득은 중요하다.              |
| 23  | The most important part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learning the grammar.                   | 영어 학습에서 영문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
| 25  | It is easier to speak than understand a foreign language.   | 영어로 작문하는 것보다 영어 말하기가 더 쉽다.            |
| 28  | The most important part of learning English is learning how to translate from my native language. | 영어 학습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
| 32  | I would like to have native speakers of English-speaking native friends.                          | 삭제                                    |
|     |   | (삽입)<br>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는 같다.              |
| 34  | It is easier to read and write English than to speak and understand it.                           | 영어 학습에 있어 듣기 영역보다 읽기 영역이 더 쉽다.        |
| 35  |   | (삽입)<br>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           |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영어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35문항(부록1 참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Likert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영어 수준

별 이동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시간은 15분으로 통제하였다. 연구자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연구자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에 참여하였고, 연구자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학습자들은 담당 영어 교사에게 양해를 구한 후 담당 영어 교사의 통제 하에 수업 중 설문에 참여하였다. 또한 설문의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 응답 방법에 대해 한국어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학습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문항이나 의문사항에 답변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부한 후 담당교사는 교실에 머물렀다. 설문지 작성 후 300명의 응답자 모두 자신들의 설문지를 제출하여 회수율은 100%였다.

교사 설문 자료 수집 또한 학습자 설문 자료 수집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장소와 상황의 제약으로 모든 교사가 한꺼번에 설문에 응하지 못하여 설문 시간을 정확히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17명의 교사가 모두 자신들의 설문지를 제출하여 회수율은 100%였다.

### 3.2.2 영어 학습 성취도 측정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성취도 측정을 위해 201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활용하였다. 기말고사는 2012년 12월 중순에 치러졌으며 객관식 유형의 듣기 및 말하기 17문항, 읽기 30문항과 서술형 유형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시험은 80분간 진행되었다. 객관식 문항은 70점, 서술형 문항은 30점을 배점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표 4> 영어 학습 성취도 측정 도구 분석

| 성취도 | 학습자 수 | 점수분포        | 평균   | 표준편차  |
|-----|-------|-------------|------|-------|
| 상   | 94    | 40 - 99     | 71.5 | 14.48 |
| 중   | 98    | 32 - 85     | 52.1 | 12.47 |
| 하   | 62    | 13.5 - 69.5 | 38.0 | 12.70 |
| 전체  | 254   | 13.5 - 99   | 52.2 | 18.02 |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총 300명이지만, 자신의 기말고사 성적 활용에 동의한 학습자는 상 수준 94명, 중 수준 98명, 하 수준 62명으로, 총 254명의 영어 학습 성취도는 <표 4>와 같다.

상 수준 학습자의 평균은 71.5점, 중 수준 학습자의 평균은 52.1점, 하 수준 학습자의 평균은 38점으로 자신의 기말고사 성적 활용에 동의한 학습자의 고사 평균은 52.2점, 표준편차는 18.02였으며, 최하점은 13.5점, 최고점은 99점이었다.

### 3.2.3 연구 참여자 배경 설문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을 묻는 설문 35문항 이후에 학습자의 배경정보를 묻는 7개의 문항(부록2 참조)을 첨부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이, 성별, 영어 학습 시간,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 능력 정도, 영어 습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어로 말하는 친구가 본인의 영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영어 습득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학습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 참여자 중 교사의 배경정보를 묻는 설문지 역시 교사가 인식하는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을 묻는 설문 35문항 이후에 7문항(부록3 참조)을 첨부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이, 성별, 경력,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대한 판단, 영어 습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어로 말하는 친구가 본인의 영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영어 습득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학습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 3.2.4 학습자 인터뷰 문항 및 자료 수집 방법

학습자들의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자 인터뷰 방법 또한 병행하였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학생 300명 중 무작위로 55명을 선발하여 학습자 자신이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듣는 반구조화 인터뷰 (semi-structured interview) 문항(부록4 참조)을 이용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한명 당 2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2012년 9월

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총 녹음한 시간은 약 33시간이었으며, 이 중 영어 학습과 관련한 신념을 상세하게 기술한 인터뷰 내용을 연구 목적에 맞게 발췌하였다.

### 3.3 자료 분석 방법

#### 3.3.1 설문 자료 분석 방법

먼저 영어 학습에 대한 고등학생 학습자의 학습 신념 및 그들의 신념과 영어 교사가 인식하는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 차이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설문 35문항을 SPSS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영어 학습 신념은 학습자의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 신념에 대한 설문 35문항을 SPSS를 통해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로 재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신뢰도(reliability) 분석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신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학습 신념 요인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 (2)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적용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신념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학습 신념의 패턴을 조사하였다.
- (3)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수와 백분율을 분석하여 학습자 및 교사들의 개인 정보 분석과 영어 학습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조사하였다.
- (4) 회귀분석(regression)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신념 요인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 (5)  $t$ -test를 학습자의 학습 신념과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 (6) ANOVA(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7) 사후검정(Tukey's test)을 통해 영어 학습 신념 요인과 영어 학습 신념에 관한

문항은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 3.3.2 인터뷰 자료 분석 방법

인터뷰 자료 수집 후 세 가지 절차에 따라 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인터뷰 자료를 해석적(interpretive)으로 관독하고, 수집된 자료를 축소한다. 즉, 수집된 모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들 중에서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자료가 의미하거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자료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 연구의 목적에 맞는 자료만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둘째, 자료를 정리하며 코딩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해낸 자료를 전사를 통하여 정리하고, 그 자료를 범주화한다. 면담 자료를 줄 단위로 세밀하게 읽으면서 의미화하여 범주로 조직하고, 범주들 내에서 발췌한 내용들 간의 연결고리와 패턴을 찾아,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찾는다.

셋째, 결론의 도출이다. 이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신념을 가지게 된 이유 및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 하는 근거 등을 통해 한국인 고등학생이 가진 영어 학습에 대한 신념을 정리한다.

현재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한 삼각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이번 장에서는 SPSS를 통해 분석한 한국인 고등학생의 영어에 대한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영어 교사의 영어에 대한 신념과 비교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신념은 그들의 영어 학습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영어 성취 수준에 따른 학습 신념의 차이를 조사한다.

### 4.1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신념 요인

#### 4.1.1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에 대한 양적 연구 결과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SPSS를 통해 35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요인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 35개 중 관련성을 가진 문항끼리 묶어 다섯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영어 학습의 성격(F1),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라고 명명하였다. SPSS를 통해 이 다섯 가지 요인의 신뢰도와 기술통계를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영어 학습 신념 요인별 신뢰도와 기술통계

| 요인             | 문항수 | 신뢰도 | 평균   | 표준편차 |
|----------------|-----|-----|------|------|
| 영어 학습의 성격(F1)  | 9   | .75 | 3.51 | .36  |
| 영어 학습의 적성(F2)  | 8   | .76 | 3.05 | .39  |
|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 5   | .79 | 3.24 | .40  |
| 영어 학습 전략(F4)   | 5   | .73 | 3.07 | .24  |
| 영어 학습의 동기(F5)  | 4   | .61 | 3.76 | .40  |

영어 학습 신념 요인 중 영어 학습의 동기(F5)의 평균이 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 학습의 적성(F2)의 평균은 3.05로 가장 낮았다. 영어 학습의 동기(F5) 평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처한 입시와 더 나아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도구적인 이유로 인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영어 학습의 적성(F2) 평균이 가장 낮은 이유는 학습자들은 한국 학생들의 영어 습득 능력을 저평가하며 나아가 자신의 영어 습득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신뢰도 측정 시 Cronbach's alpha 계수가 .70이상이면 신뢰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영어 학습에 관한 다섯 가지 요인 중 영어 학습의 동기(F5)의 신뢰도 계수는 .61로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이는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해당하는 문항의 수가 나머지 요인에 속한 문항 수보다 적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섯 개 요인의 총 변량은 57.1%이며, 35개의 설문 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0.3 미만인 문항은 제외하여, 네 개의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문항은 3번 문항(영어습득이 다른 외국어 습득보다 쉽다), 12번 문항(영어는 영어권 나라에서 가장 잘 습득될 수 있다), 15번 문항(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 1시간 영어공부를 한다면 영어를 잘 말하게 될 때까지 ①1-2년 ②3-5년 ③6-10년 ④10년 이상 걸린다 ⑤결코 영어를 습득할 수 없다), 30번 문항(2개 국어 이상을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이다. 각 표는 비교의 수월성을 위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각 표에서는 응답자의 비율, 평균, 표준편차로 결과 수치를 표현하였다.

#### 4.1.1.1 제 1요인: 영어 학습의 성격

제 1요인(이하 F1으로 칭함)의 변량은 18.4%이며, 정확한 발음, 영미문화 학습, 풍부한 어휘 습득, 영문법의 중요성 등은 영어 학습의 성격에 관한 것이므로 이 요인들은 영어 학습의 성격으로 명명하였다. <표 6>은 31개의 설문 문항 중 영어 학습의 성격에 관련된 총 9문항을 분류하여 한 데 묶은 것이다.

“나중에 정확한 영어 말하기를 위해 기초 때 영어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수적인지”(22번)를 묻는 문항에서 300명의 학습자 중 64%(192명)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그들의 응답 평균은 3.57로 남정미(2013)의 2.70과 박찬규(2005)의 응답 평균인 2.79보다 높게 나타나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

<표 6> 영어 학습의 성격(F1)

| 설문 문항   |     | 1*   | 2  | 3  | 4  | 5  | M**  | SD   |
|---|-----|------|----|----|----|----|------|------|
| 22. 기초 때부터 영어 실수를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751)**** | 학습자 | 3*** | 15 | 18 | 49 | 15 | 3.57 | 1.01 |
|   | 교사  | 6    | 47 | 12 | 35 | 0  | 2.76 | 1.03 |
| 23. 영어 학습에서 영문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668)                        | 학습자 | 13   | 41 | 32 | 13 | 1  | 2.48 | .92  |
|   | 교사  | 12   | 65 | 18 | 6  | 0  | 2.18 | .73  |
| 32.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는 같다. (-.622)                                    | 학습자 | 32   | 42 | 22 | 3  | 1  | 1.98 | .85  |
|   | 교사  | 35   | 53 | 0  | 12 | 0  | 1.88 | .93  |
| 7. 영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94)                          | 학습자 | 2    | 14 | 13 | 50 | 21 | 3.74 | 1.00 |
|   | 교사  | 0    | 0  | 6  | 82 | 12 | 4.06 | .43  |
| 28. 영어 학습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556)                | 학습자 | 0    | 11 | 6  | 18 | 65 | 4.39 | .97  |
|   | 교사  | 2    | 9  | 28 | 38 | 23 | 3.71 | .86  |
| 27. 영어 학습은 다른 교과목(수학, 사회) 학습과 다르다. (.514)                       | 학습자 | 2    | 11 | 19 | 49 | 19 | 3.74 | .95  |
|   | 교사  | 0    | 0  | 12 | 53 | 35 | 4.24 | .66  |
| 35.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 (-.480)                                 | 학습자 | 1    | 3  | 14 | 44 | 38 | 4.14 | .86  |
|   | 교사  | 0    | 12 | 6  | 77 | 6  | 3.76 | .75  |
| 17.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 습득은 중요하다. (.370)                             | 학습자 | 1    | 5  | 11 | 50 | 33 | 4.04 | .85  |
|   | 교사  | 0    | 12 | 6  | 82 | 0  | 3.71 | .69  |
| 8. 영어 습득을 위해서는 영미문화를 알아야 한다. (.367)                             | 학습자 | 2    | 18 | 23 | 45 | 12 | 3.48 | .97  |
|   | 교사  | 0    | 6  | 0  | 82 | 12 | 4.00 | .61  |

\*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잘 모르겠다. 4=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M=평균, SD=표준편차

\*\*\*소수 첫째자리에서 정수로 반올림하였으며, 각 숫자는 백분율을 의미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요인 적재량을 의미한다.

초 때 실수를 바로 잡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정확한 영어 말하기가 가능하다고 생

각하는 학습자들은 18%(54명)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로 보아 많은 학습자들이 학습 초기의 화석화(fossilization)로 인하여 자신의 실수가 고착화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습자 중 14%(42명)만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문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23번)고 생각하였으며, 54%(163명)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2.48의 응답 평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영문법보다는 영어 구사능력을 우선 목표로 하는 7차 개정교육과정을 학습 중이므로 가지게 된 신념으로 보인다. 이 문항의 연구 결과는 Ahn과 Yang(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Simon과 Taverniers(2011)의 연구의 학습자들이 정확한 문법 사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일치하지만, Banya와 Cheng(1997), Peacock(1999), Samimy와 Lee(1997)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학습자 중 71%(213명)가 “영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번)고 믿고 있었으며, 16%(48명)는 정확한 영어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영어를 발화함에 있어 정확성(accuracy)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확한 발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28번)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 중 83%(248명)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단지 11%(34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번역 위주의 고등학교의 수업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문항의 연구 결과는 4.39의 응답 평균을 보여 Horwitz(198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박찬규(2005)의 응답 평균 3.18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지”(35번)를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 중 82%(245명)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단 4%(12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Simon과 Taverniers(2011)의 새로운 영어 단어와 문법의 습득을 위해 암기력이 중요하다는 결론과 일치하며, Kim(2006a)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Ahn과 Yang(2009)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일주일에 한번 씩 수행평가의 일부분으로 영어 단어 암기 테스트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고 답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습자 중 83%(247명)는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 습득이 중요하다”(17번)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35번 문항의 답변 원인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번 씩 치르는 영어 단어 암기 수행평가로 인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문법이나 발음보다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 Simon과 Taverniers(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중 57%(172명)는 “영어습득을 위해서는 영미문화를 알아야 한다”(8번)고 생각하여, Kim(2006a)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김준호(1999)의 연구 결과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많은 학습자들이 영어 습득을 위해 영미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학습자 자신들이 수업시간에 학습하거나 영어 교재를 통해 접하고 있는 글들이 영미문화를 배경 한 글이 많고, 또 영미문화를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상당수 등장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어 학습의 성격(F1)에 대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신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중 64%(192명)가 기초 때 실수를 바로 잡아주어야 나중에 정확한 영어를 말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정확한 영문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단지 14%(42명)에 불과했다. 74%(222명)의 학습자가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는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71%(213명)의 학습자는 영어를 말할 때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는 83%(248명)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영문법보다 번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8%(205명)의 학습자가 영어 학습은 수학이나 사회와 같은 다른 교과목 학습과는 다르다고 하였으며, 82%(246명)의 학습자가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풍부한 어휘 습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는 83%(247명)였고, 57%(172명)의 학습자가 영어 습득을 위해서 영미문화를 알아야한다고 답하였다.

#### 4.1.1.2 제 2요인: 영어 학습의 적성

제 2요인(이하 F2로 칭함)의 변량은 14.5%이며, 연령 · 성별 · 국적 · 다른 외국어 능력과 영어 습득의 상관관계, 영어 습득을 위한 능력 등은 영어 학습의 적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요인들은 영어 학습의 적성으로 명명하였다. <표 7>은 영어 학습의 적성에 관한 8문항을 분류하여 한 데 묶은 것이다.

<표 7> 영어 학습의 적성(F2)

| 설문 문항                                       |     | 1  | 2  | 3  | 4  | 5  | M    | SD   |
|---|-----|----|----|----|----|----|------|------|
| 2.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663)        | 학습자 | 4  | 10 | 27 | 45 | 14 | 3.54 | .99  |
|   | 교사  | 0  | 6  | 0  | 77 | 18 | 4.06 | .66  |
| 1. 영어는 어른보다 아이가 쉽게 습득한다. (.567)             | 학습자 | 2  | 3  | 16 | 52 | 26 | 3.97 | .86  |
|   | 교사  | 0  | 6  | 0  | 35 | 59 | 4.47 | .80  |
| 16. 나는 영어습득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 (.560)     | 학습자 | 20 | 35 | 40 | 3  | 2  | 2.34 | .91  |
|   | 교사  | 0  | 24 | 59 | 18 | 0  | 2.94 | .66  |
| 6. 한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영어습득을 잘 한다. (.555) | 학습자 | 6  | 16 | 45 | 28 | 4  | 3.07 | .93  |
|   | 교사  | 6  | 71 | 12 | 12 | 0  | 2.30 | .77  |
| 11.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영어 습득에는 약하다. (.554)     | 학습자 | 22 | 41 | 28 | 8  | 2  | 2.27 | .95  |
|   | 교사  | 12 | 53 | 29 | 6  | 0  | 2.29 | .77  |
| 10.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도 쉽게 배운다. (.515)   | 학습자 | 4  | 21 | 33 | 36 | 7  | 3.20 | .97  |
|   | 교사  | 0  | 24 | 12 | 53 | 12 | 3.53 | 1.01 |
| 21. 나는 다른 사람과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508)      | 학습자 | 4  | 19 | 29 | 37 | 11 | 3.32 | 1.03 |
|   | 교사  | 6  | 41 | 24 | 29 | 0  | 2.76 | .97  |
| 19.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어습득에 유리하다. (.388)           | 학습자 | 16 | 20 | 47 | 14 | 3  | 2.68 | .99  |
|   | 교사  | 0  | 35 | 18 | 47 | 0  | 3.12 | .93  |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2번)에 대해 300명의 학습자 중 59%(176명)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14%(42명)의 학습자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많은 학습자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는 원인으로 자신보다 영어 학습에 노력을 덜 기울여도 더 높은 영어 성취도를 달성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문항의 연구 결과는 Ahn과 Yang(2009)의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Kim(2006a)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 문항의 응답 평균은 3.54로 남정미(2013)의 결과인 3.19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 중 78%(235명)가 “어른보다 아이가 영어를 더 잘 습득한다”(1번)고 생각하였고, 단 5%(15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Bernat(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습자의 상당수가 연령에 따른 영어 습득의 차이를 유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선행학습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신념이거나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영어 조기 교육 열풍으로 인해 갖게 된 신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영어 습득에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16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습자 중 단지 5%(16명)만이 그렇다고 답하여,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만 자신은 그 특별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박찬규(2005), Ahn과 Yang(2009), Kim(2006a)의 연구와 일치하며, 학습자의 노력에 비해 낮은 영어 학습 성취도 등을 이유로 많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영어 습득 능력을 부정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어 과목과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능력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11번)에 대한 문항에서 학습자 중 63%(189명)가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해, 많은 학습자가 자연계열 과목인 수학이나 과학이 인문계열 과목인 영어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들은 한두 개의 특정과목에서만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의 학업 성취가 두루 높기 때문에 갖게 된 신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하는 것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21번)를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 중 48%(143명)가 영어로 말하는 데에 있어 소극적이라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입시 위주의 영어 수업에서 영어권 화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거의 없으므로 형성된 신념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영어 습득능력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19번)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학습자 중 17%(50명)만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영어습득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답하였고, 36%(109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47%(141명)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성별과 영어 습득 사이의 상

관관계는 유의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Siebert(2003)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반을 편성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준별 학급 수가 동일하므로 갖게 된 신념으로 생각된다.

영어 학습의 적성(F2)에 대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신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59%(176명)의 학습자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답하였고, 78%(235명)가 어른보다 아이가 더 쉽게 영어를 습득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지 5%(16명)만이 자신이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고, 32%(97명)의 응답자만이 한국 학습자들이 다른 나라 학습자들에 비해 영어를 잘 습득한다고 답하여 자신의 영어 습득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29명)의 학습자는 자연계열 과목인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과목을 잘 한다고 해서 인문계열 과목인 영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43%(128명)의 학습자는 다른 외국어 습득 능력과 영어 습득 능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 학습에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 전이 효과를 믿으며 다른 과목과 영어 과목 사이의 부적 상관관계는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8%(143명)의 학습자는 다른 사람과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17%(50명)의 학습자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영어 습득에 더 유리하다고 하였으며, 36%(109명)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영어 습득과 연령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영어 습득과 성별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 4.1.1.3 3요인: 영어 학습의 용이성

제 3요인(이하 F3으로 칭함)의 변량은 10.2%이며, 영어 습득의 난이도, 영어 활용 능력의 난이도 비교 등은 영어 학습의 용이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요인들은 영어 학습의 용이성으로 명명하였다. <표 8>은 35개의 설문 문항 중 영어 학습의 용이성에 관한 5문항을 분류하여 한 데 묶은 것이다.

먼저 300명의 학습자 중 절반 이상인 55%(166명)가 “영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표 8>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 설문 문항                                       |     | 1  | 2  | 3  | 4  | 5  | M    | SD   |
|---|-----|----|----|----|----|----|------|------|
| 4. 영어는 습득하기                                 |     |    |    |    |    |    |      |      |
| (1) 매우 어려운 언어                               | 학습자 | 5  | 50 | 36 | 7  | 1  | 2.49 | .76  |
| (2) 어려운 언어 (3) 보통인 언어                       |     |    |    |    |    |    |      |      |
| (4) 쉬운 언어 (5) 매우 쉬운 언어이다.                   | 교사  | 6  | 35 | 59 | 0  | 0  | 2.53 | .62  |
| (.759)                                      |     |    |    |    |    |    |      |      |
| 5. 나는 영어를 남들만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32) | 학습자 | 2  | 11 | 52 | 27 | 8  | 3.28 | .84  |
|   | 교사  | 0  | 6  | 18 | 65 | 12 | 3.82 | .73  |
| 25. 영어로 작문하는 것보다 영어 말하기가 더 쉽다. (-.541)      | 학습자 | 4  | 16 | 28 | 42 | 11 | 3.40 | 1.00 |
|   | 교사  | 0  | 47 | 18 | 35 | 0  | 2.88 | .93  |
| 33. 누구나 영어 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다. (.427)          | 학습자 | 1  | 6  | 17 | 52 | 23 | 3.91 | .86  |
|   | 교사  | 0  | 12 | 6  | 53 | 29 | 4.00 | .94  |
| 34. 영어 학습에 있어 듣기 영역보다 읽기 영역이 더 쉽다. (.757)   | 학습자 | 9  | 21 | 28 | 29 | 12 | 3.13 | 1.16 |
|   | 교사  | 12 | 29 | 18 | 35 | 6  | 2.94 | 1.20 |

언어”(4번)라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8%(25명)만이 습득하기 쉬운 언어라고 응답하였다. 영어는 모국어인 한국어와 비교하여 문장 구조부터 어휘 및 문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는 영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느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Ahn과 Yang(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남정미 (2013), Kim(2006a)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영어를 남들만큼 잘 습득할 수 있을지”(5번)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 중 단지 35%(106명)만이 그렇다고 답하여, <표 7>의 16번 문항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어 학습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Bolton(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Bagherzadeh와 Azizi(2012),

Kim(2006a)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영어의 활용능력에 대한 난이도에 있어 학습자 중 53%(158명)가 “영어로 작문하는 것보다 영어로 말하기가 더 쉽다”(25번)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19%(58명)에 불과하여, Kim(2006a)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수업은 거의 번역이나 문법 설명이 주를 이루고 약간의 듣기 수업이 병행된다. 듣기나 말하기 수업 역시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한 회화위주의 수업이 아닌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이용하여 문제 푸는 기술을 익히는 정도이다. 하지만 작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가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수업시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영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번 고치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은 영어로 글을 쓰는 것에 비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거의 접해보지 못했고 많은 생각을 요하는 영어 작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즉흥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수업시간에 약간이나마 접해보았던 영어 말하기를 더 쉽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영어의 영역 중 말하기를 누구나 습득할 수 있다”(33번)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76%(228명)의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한편 “영어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을 비교하였을 때, 듣기 영역보다 읽기 영역이 더 쉽다”(34번)고 답한 학습자는 41%(124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습자는 31%(92명)로 듣기 영역에 비해 읽기 영역이 쉽다고 느끼는 학습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준호(1999), 박형기(1986), 오준일(1992)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그 원인은 듣기나 말하기가 아닌 번역이나 문법 위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현 고등학교 수업 상황에서 찾을 수 있겠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에 대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신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자 중 절반 이상인 55%(166명)의 학습자들은 영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하였지만, 76%(228명)의 학습자는 누구나 영어 말하는 것을 습득 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습자는 35%(106명)에 불과하여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영어의 네 가지 활용 능력 중에서 쓰기 영역보다 말하기 영역을 더 쉽게 생각하였으며, 듣기 영역 보다 읽기 영역을 더 쉽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마 이는 대학 입시에 대비한 고등학교 수업 내용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4.1.1.4 제 4요인: 영어 학습 전략

제 4요인(이하 F4로 칭함)의 변량은 7.2%이며, 모르는 어휘 추측하기, 영어 습득을 위해 반복 연습하기, 오디오 교재 활용하기 등은 영어 학습의 전략에 관한 것이므로 이 요인들은 영어 학습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표 9>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신념 5문항을 묶은 것이다.

<표 9> 영어 학습 전략(F4)

| 설문 문항  |    | 1  | 2  | 3  | 4  | 5  | M    | SD   |
|--|----|----|----|----|----|----|------|------|
| 14. 나는 영어 어휘를 모를 때 보통 추측해서 알려고 한다. (.765)      | 학생 | 3  | 16 | 20 | 51 | 10 | 3.49 | .97  |
|  | 교사 | 0  | 0  | 6  | 82 | 12 | 4.06 | .43  |
| 9.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726) | 학생 | 48 | 43 | 7  | 1  | 1  | 1.64 | .73  |
|  | 교사 | 65 | 35 | 0  | 0  | 0  | 1.35 | .49  |
| 26. 오디오 교재(카세트, CD)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617)     | 학생 | 4  | 6  | 30 | 48 | 11 | 3.55 | .92  |
|  | 교사 | 0  | 0  | 18 | 65 | 18 | 4.00 | .61  |
| 13. 나는 영어권 친구와 영어연습 하는 것을 즐긴다. (.551)          | 학생 | 32 | 31 | 23 | 10 | 3  | 2.20 | 1.09 |
|  | 교사 | 0  | 6  | 41 | 47 | 6  | 3.53 | .72  |
| 18. 영어 습득을 위해 영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437)    | 학생 | 0  | 1  | 3  | 45 | 51 | 4.46 | .60  |
|  | 교사 | 0  | 0  | 0  | 59 | 41 | 4.41 | .51  |

먼저 “영어를 접할 때 모르는 어휘는 추측해서 알려고 하는지”(14번)를 묻는 문항에서 300명의 학습자 중 61%(184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19%(57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또한 모의 학력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어 학습자들은 영어를 접할 때 모르는 어휘는 추측해서 알아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어 공부에 관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you read in a foreign language,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is put your dictionary in an inconvenient place. Don't worry about the words you don't know. If you come across a new word, try to keep reading; often you can guess the meaning of the word from the context. Take a look, for example, at the following two sentences: *The movie was ijish. I laughed really hard.* Did you want to get your dictionary when you saw the word "ijish"? If you look up "ijish" in the dictionary, you would be disappointed, because you cannot find "ijish" in any dictionary. If, however, you continued reading, the next sentence would make the meaning clear for you.

- ① 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라.
- ②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문맥으로 추론하라.
- ③ 필수 단어의 의미를 반드시 암기하라.
- ④ 글을 읽을 때 정독을 하지 말고 속독을 하라.
- ⑤ 평소 다양한 글을 많이 읽어 어휘력을 늘려라.

정답 ②

(대성학력개발연구소. 2009년 5월 고2 모의대학수학능력시험. 34번)

이렇듯 학습자들은 모르는 어휘는 추측을 통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직·간접적으로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많은 학습자들이 모르는 어휘는 바로 사전을 찾거나 물어보는 등 어떠한 도움 없이 스스로 추측해서 알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지”(9번)를 묻는 문항에서는 학습자 중 91%(274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Ahn과 Yang(2009), Kim(2006a)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문항의 연구 결과로 보아 학습자들은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반복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을 추측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과연 “영어권 친구와 영어 연습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13

번)? 학습자 중 단 13%(40명)만이 영어권 친구와 영어 연습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였고, 63%(190명)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대학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으로 인해 영어권 친구를 사귄 기회가 많지 않고 학습자 자신들 스스로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은 필요가 없거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된 신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 습득을 위해 영어의 반복 연습이 중요한지”(18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습자 중 96%(289명)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단 1%(2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박찬규(2005), Kern(1995), Kim(2006a)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9번 문항에 대한 의견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영어 학습 전략(F4)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61%(184명)의 학습자는 영어를 접할 때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스스로의 힘으로 추측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91%(274명)의 학습자는 비록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59%(177명)는 오디오 교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입시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응답자 중 단 13%(40명)만이 영어권 친구와 영어연습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96%(289명)의 학습자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고 답하여,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반복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4.1.1.5 제 5요인: 영어 학습의 동기

제 5요인(이하 F5로 칭함)의 변량은 6.8%이며, 영어와 좋은 직업의 관계, 영어권 사람들을 더 잘 알기 위한 영어 학습, 영어를 잘 말하고 싶은 마음 등은 영어 학습의 동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요인들은 영어 학습의 동기로 명명하였다. <표 10>은 한국인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학습의 동기 4문항을 정리한 것이다.

300명의 학습자 중 학습자 중 단지 13%(40명)만이 “영어권 사람들을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24번)고 답하였고, 64%(192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응답 평균은 2.59였다. 이는 Bagherzadeh와 Azizi(2012)의 응답 평균 4.50과 상당한 차이가

<표 10> 영어 학습의 동기(F5)

| 설문 문항                                     |    | 1  | 2  | 3  | 4  | 5  | M    | SD   |
|---|----|----|----|----|----|----|------|------|
| 24. 나는 영어권 사람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714) | 학생 | 20 | 44 | 22 | 10 | 3  | 2.32 | 1.00 |
|   | 교사 | 6  | 53 | 18 | 23 | 0  | 2.59 | .94  |
| 20.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709)     | 학생 | 5  | 10 | 19 | 38 | 28 | 3.75 | 1.12 |
|   | 교사 | 0  | 18 | 24 | 41 | 18 | 3.59 | 1.00 |
| 29.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681) | 학생 | 1  | 1  | 6  | 36 | 55 | 4.44 | .76  |
|   | 교사 | 0  | 0  | 0  | 77 | 24 | 4.24 | .44  |
| 31. 나는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373)        | 학생 | 1  | 1  | 3  | 34 | 60 | 4.52 | .70  |
|   | 교사 | 0  | 0  | 6  | 59 | 35 | 4.29 | .59  |

있는 결과이다.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0번)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66%(199명), 응답 평균은 3.75로 이는 Bagherzadeh와 Azizi(2012)의 응답 평균 4.11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Moser(201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고등학생으로서 영어권 사람들을 잘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로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과목이 차지하는 주당 시수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습자 중 91%(274명)가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29번) 고 답했고, 이는 Truit(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더불어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31번) 학습자는 94%(283명)로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가 영어를 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로 보아 연구 참여 학습자들은 입시나 취업이라고 하는 외재적이고 도구적인 동기를 가지고 영어를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영어를 잘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역시 갖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영어권 사람들을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고 답한 학습자는 단지

13%(40명)에 불과한 반면 또한 91%(274명)의 학습자가 영어를 잘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입시나 취업을 위한 외재적 동기로 인해 영어를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 중 66%(199명)가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94%(283명)의 학습자가 영어를 능숙하게 잘 말하기를 원하였다.

## 4.1.2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양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가 자신의 영어 학습 신념을 형성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뒷받침해 줄 근거를 찾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학습자의 신념이 잘 드러난 문항만을 선별하여 인용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1.2.1 제 1요인: 영어 학습의 성격

영어 학습의 성격(F1)에 관한 9개의 문항 중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2개의 문항(32번, 28번)을 제외한 7개의 문항(22번, 23번, 7번, 27번, 35번, 17번, 8번)에 대한 인터뷰 자료만을 정리한다.

많은 학습자들이 “나중에 정확한 영어 말하기를 위해 기초 때 영어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22번)고 답하며 다음 (1)과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 하였다.

- (1) 반복 학습을 통해 이미 굳어진 기초 부분을 나중에 고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저는 risen[rízn]이라는 단어를 자꾸 [rarzn]이라고 발음해요. 잘못 발음해서 지적을 받아도 꼭 다음번에도 틀리게 발음하게 되더라고요. (지원<sup>2)</sup>)

---

2) 연구 대상의 이름은 가명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나중에 정확한 영어 말하기를 위해 기초 때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학습자들은 화석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초 때 실수를 바로 잡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정확한 영어 말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학습자들은 다음(2)와 같이 답하였다.

- (2) 실수는 나중에도 고칠 수 있으니까 영어를 배우는 초반에는 흥미를 갖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는데 실수 한 것을 자꾸 지적받다보면 소심해져서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할 것 같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잃게 될 것 같은데요. (현영)

기초 때 실수를 바로잡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정확한 말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기초 때는 흥미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며 실수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문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23번)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문법이 중요한 우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신념은 다음 (3), (4)와 같다.

- (3) 저는 영어 공부하는데 있어서, 영어 에세이 쓰기와 영어로 말하기 그리고 영어 프로그램 방송 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번역이나 문법 설명, 구문 분석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주어진 주제에 맞춰 글을 쓰며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와 문법을 익히고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인터넷 전화 및 채팅을 통한 영어권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진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학습하면 좋겠어요. (하연)

- (4) 제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울 때엔 문법을 먼저 배우지 않았고,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한국어 문법을 배운 적이 없으며 일본어 문법은 지금까지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어도, 일본어도 모두 능숙하게 말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딱히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즉, 문법 대신 말하기와 듣기 수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혁진)

이렇듯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문법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문법보다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 자신감 혹은 실제 의사소통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영문법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무리가 없거나,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학습의 경험을 들어 영문법 학습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영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비롯한 실생활에서의 사용 때문에 영문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좋은 시험 성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영문법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학습자의 상당수는 “영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번)고 믿고 있었다. 정확한 영어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의 의견은 다음 인터뷰 (5), (6)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 영어 문화권마다 발음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발음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heet 와 shit의 경우요.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수아)

(6)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외국에 나가서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제가 발음을 이상하게 해서 원어민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요. (진민)

이처럼 학습자들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확한 영어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영어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도 몇몇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의견은 인터뷰 자료 (7)에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

(7) 정확한 발음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

달할 수 있을 정도의 발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고 너무 억지스럽게 발음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원어민이 못 알아듣는 경우를 본적이 있어요. (진성)

정확한 영어 발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가진 학습자들은 상대가 이해할 정도의 발음이면 굳이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사회나 수학과 같은 다른 교과목을 학습하는 것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있는지”(27번)에 대해 절반 이상의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그들의 신념은 다음 인터뷰 자료 (8)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8) 아무래도 영어는 일종의 언어이다 보니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는 암기과목이라는 인상이 강하고, 역사는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시험문제도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바깥 외워서 시험 보면 그럭저럭 점수가 잘 나오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공부를 안하면 감각이 떨어지니까 꾸준히 해야하더라구요. (미소)

이처럼 학습자들은 다른 교과목과 다르게 영어는 감각이 중요하며, 정확하게 답이 정해진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영어와 다른 교과목의 학습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소수의 학습자는 영어도 다른 교과목 학습과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의 의견은 다음 (9)와 같다.

(9) 수학은 공식을 암기하고, 사회는 시대나 흐름을 암기하는 것처럼 영어도 어휘나 문법 등을 외우는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외워야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영어도 다른 과목과 같은 암기과목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진성)

이처럼 몇몇 학습자들은 영어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어휘나 문법을 암기해야 하므로 학습에 있어서 다른 교과목과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어서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지”(35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습자는 “영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 및 숙어를 암기하고 한국어와는 다

른 문법 등 외워야 할 것이 많으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아래 (10)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 (10) 꼭 암기를 통해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영어라는 언어의 방대한 지식을 암기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익히지 못하겠지만, 여러 차례 반복 학습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익혀지는 것이지 반드시 암기력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슬기)

하지만 이 학습자도 역시 영어에 대한 지식을 암기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익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반복 학습 역시 몸과 머리에 익히는 일종의 암기를 의미하므로,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영어는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대부분은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 습득이 중요하다”(17번)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어휘를 알아야 영어의 활용능력이 잘 길러질 수 있다”는 공통된 그들의 신념은 다음 인터뷰 내용 (11), (12), (13)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11) 우리나라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독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해를 잘 하려면 어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아)
- (12) 독해나 듣기가 시험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휘를 많이 알면 독해나 듣기는 기본으로 풀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진성)
- (13) 모든 언어가 그렇듯 어휘력이 풍부한 것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현)

이렇듯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본으로 어휘력을 꼽고 있었고, 어휘력이 떨어지면 나머지 다른 영역들의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휘력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상당수는 “영어습득을 위해서는 영미문화를 알아야한다”(8번)는 자신의 신념을 (14), (15), (16)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14) 언어를 배울 때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나 특성에 대한 배경지식이 더욱 풍부할 때 해당 언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연주)

(15) 영미문화를 알면 영어의 구어나 은어도 알 수 있고, 책으로 외워서 익히는 회화표현이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생활영어 표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완)

(16) 그 나라의 문화를 알면, 독해를 하거나 듣기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쉽게 추측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현)

이처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풍부한 배경지식의 습득이나 구어체 표현을 알기 위해서 혹은 독해 영역이나 듣기 영역을 학습 할 때 모르는 단어의 용이한 추측을 위해서 영미문화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 4.1.2.2 제 2요인: 영어 학습의 적성

영어 학습의 적성(F2)에 관한 8문항 중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었던 4개의 문항(1번, 6번, 10번, 21번)만을 정리한다.

학습자의 상당수는 “어른보다 아이가 영어를 더 잘 습득한다”(1번)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의 의견은 다음 인터뷰 내용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아이들의 뇌는 마치 스펀지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외부 입력을 더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어도 어른들보다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린)

(18) 나이를 먹으면 영어를 배우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자꾸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신감이 없어져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말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쉽게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해요. (민준)

이처럼 어른과 어린아이의 뇌 성향 및 적극적 태도로 인해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영어를 더 쉽게 배운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영어를 더 쉽게 습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한 극소수 학습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의견은 다음 (19)와 같다.

(19) 영어는 한국어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희란)

이처럼 영어 습득은 학습자의 성실성과 열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국 학습자들과 다른 나라 학습자들의 영어 실력을 비교”(6번)하여 다른 나라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 학습자들의 영어 실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학습자의 응답률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의 응답률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다른 나라 학습자들보다 한국 학습자들의 영어 실력을 더 낮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이유를 다음 (20), (21)과 같이 설명하였다.

(20) 한국 부모님들은 영어 조기교육이나 유학처럼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에 비해 영어 습득을 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혜연)

(21) 한국어와 영어는 뿌리가 다른 언어이므로 해석되는 순서부터 다르니까 배우기는 엄청 힘든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반복학습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충완)

이처럼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 습득하는 이유를 조기교육이나 반복학습 등으로 꼽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 학습자들이 다른 나라 학습

자들에 비해 영어를 더 잘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의 신념은 다음 인터뷰 자료(22), (23)에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

(22) 유럽이나 동남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를 말하기 위주로 가르쳐서 일반인의 영어회화 실력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난데, 한국인은 읽기나 문법 실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앞지르지 몰라도, 실생활에 쓰이는 영어나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승은)

(23) 한국이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그만큼 교육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교육에 있어서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의 활용을 실용적인 면에서 배운다기보다 아직까지는 입시교육처럼 틀에 박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영어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소영)

이처럼 응답자들은 한국의 영어교육은 회화 위주나 실용성을 강조한 교육이 아니므로 다른 나라 학습자들과 견주었을 때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영어실력은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영어와 다른 외국어 학습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는지, 즉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쉽게 배우는지”(10번)를 묻는 문항에서는 학습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이러한 신념을 가진 학습자들은 “어떤 언어든간에 각 언어 사이에는 공통적 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언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외국어든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학습자 일부는 영어와 다른 외국어 학습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신념을 가진 응답자의 의견은 다음 (24)와 같다.

(24) 외국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일례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어원이 비슷한 것이 많고 한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게다가 어순도 같구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만약 영어와 구조적으로 비슷한 외국어를 습득하고 있다면 영어 또한 쉽게 배울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해요. (혁진)

이처럼 반드시 한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진 언어에 한해서 그 습득 능력이 긍정적으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태도”(21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절반 정도의 학습자가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는 다음 (25)와 같다.

(25) 영어로 말하기 전에 어법이 틀리지 않나, 발음이 맞나, 이 상황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에 영어로 말할 때 길게 말하지도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선혜)

이처럼 학습자들은 자신의 영어 능력을 낮게 평가하여 자신감을 갖지 못하며, 영어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 한 후 발화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 4.1.2.3 제 3요인: 영어 학습의 용이성

영어 학습의 용이성에 대한 5문항 중 2문항(5번, 33번)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신념을 뒷받침 해주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자신도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5번) 믿는 학습자는 많지 않았으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영어 습득 실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 (26), (27)과 같다.

(26) 영어는 잘 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꼬박꼬박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성적은 덜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다가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린)

(27) 영어는 공부해야할 영역이 너무 많아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배운 것을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러다보면 내가 정말 영어에 소질이 없나.. 아니면 내 이해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승빈)

이처럼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유발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영어 습득 실력을 저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상당수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영어 습득 능력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누구든지 영어를 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다”(33번)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신념은 다음 인터뷰 자료 (28), (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제 사촌 동생이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웠다고 하면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영어 말하기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승연)

(29)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보면 최고령 수능 응시자라던가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간혹 나오잖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배움 자체에는 남녀노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

학습자들은 주변 인물을 관찰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누구나 영어 말하기를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 4.1.2.4 제 4요인: 영어 학습 전략

영어 학습 전략(F4)에 관한 총 5문항 중에서 영어 학습 신념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뚜렷하게 알 수 있었던 3문항(9번, 26번, 18번)만을 정리한다.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지”(9번)를 묻는 문항에서 거의 모든 학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그들이 그러한 신념을 형성하게 된 이유는 다음 인터뷰 자료 (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어떤 언어든지 습득하기 위해서는 자꾸 말해보고 쓰고 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서툴지만 자꾸 말하면서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영어를 배울 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혁주)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영어로 정확하게 말 할 수 없어도 여러 차례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거쳐야 영어 실력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카세트나 CD와 같은 오디오 교재의 사용에 있어 절반 이상의 학습자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오디오 교재의 사용은 도움이 된다”(26번)고 답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 (31)과 같다.

(31) 일단 현실적으로 원어민을 통해서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구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디오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어를 습득했어요. 그리고 일단 귀에 익숙해지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해요. (현준)

이처럼 많은 학습자들은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오디오 교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영어 습득을 위해 영어의 반복 연습이 중요한지”(18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32)와 같다.

(32) 경험상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듣기 문제도 잘 들리지 않았었는데, 반복해서 들으니 이제 어느 정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는 아이들 용알이를 잘 못 알아듣지만, 엄마들은 자식들의 용알이를 잘 알아듣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엄마들도 자꾸 들으니 자식들의 용알이를 듣고, 자식이 뭘 원하

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영어도 자꾸 반복해 들으니 문제에서 뭘 원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지용)

이처럼 많은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 4.1.2.4 제 5요인: 영어 학습의 동기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관한 4문항 중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을 잘 알 수 있  
었던 문항은 2문항(24번, 20번)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 중 “영어권 사람들을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24  
번)고 답한 학습자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  
하였다. 그들의 의견은 다음 인터뷰 자료 (3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3) 아직까지는 영어권 문화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기보다  
는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영어에  
흥미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하다보면 입시 이외의 다른 영  
어 공부 목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입시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연)

이처럼 많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의 동기는 영어권 사람들을 잘 알기 위함은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학습자는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0번)  
고 생각하였으며, 이 문항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신념은 다음 인터뷰 자료 (34),  
(35)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4)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  
서 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잖아요.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영어 하  
나만 제대로 하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재경)

(35)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직까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취업 후에도 공인 영어시험을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본다고 하는데, 만약 영어를 못한다면 대기업 취직은 힘들 것이고 혹시 취직했다고 하더라도 영어 성적 때문에 회사에서 퇴출당할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즉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관희)

이처럼 많은 학습자들은 대학 진학 혹은 취업과 같은 외재적인 동기로 인해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2 영어 학습 신념 요인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 차이

영어 학습 신념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다.

<표 11> 학습자와 교사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 비교

| 학습 신념 요인       | 학습자<br>(n=300) |          | 교사<br>(n=17) |          | t      | 유의<br>확률 |
|----------------|----------------|----------|--------------|----------|--------|----------|
|                | 평균             | 표준<br>편차 | 평균           | 표준<br>편차 |        |          |
| 영어 학습의 성격(F1)  | 3.51           | .36      | 3.19         | .26      | 1.664  | 0.97     |
| 영어 학습의 적성(F2)  | 3.05           | .39      | 3.18         | .35      | -1.402 | .162     |
|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 3.24           | .48      | 3.23         | .40      | .080   | .936     |
| 영어 학습 전략(F4)   | 3.07           | .45      | 3.47         | .24      | -3.694 | .001     |
| 영어 학습 동기(F5)   | 3.76           | .40      | 3.68         | .39      | .666   | .506     |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의 평균 순서는 F5 > F1 > F3 > F4 > F2 순이며, 교사가 인식하는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 요인의 평균 순서는 F5 > F4 > F3 > F1 > F2 순이다. 학습자와 교사의 평균이 가장 높은 요인은 영어 학습 동기(F5)로서 학습자와 교사 양 집단 모두 입시나 취업 등 도구적인 동기로 인한 영어 학습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학습의 적성(F2)은 학습자와 교사 모두 가장 낮은 평균을 가진 요인으로서, 학습자와 교사 모두 한국 학습자들의 영어 습득 실력을 낮게 평가하거나 성별에 따른 습득 능력의 차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신념보다 학습자의 신념 평균이 높게 나타난 요인은 영어 학습의 성격(F1), 영어 학습 동기(F5) 요인으로,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교사보다 학습자가 풍부한 어휘 습득이나 영문법 혹은 번역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영어를 학습하는 외재적인 동기 또한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실제 학습 신념이 더욱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습자의 학습 신념보다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 평균이 높게 나타난 요인은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 전략(F4) 요인으로, 학습자에 비해 교사가 학습자의 영어 습득 능력,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영어

습득 능력의 차이 및 모르는 어휘를 추측하는 등의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 신념과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에 있어 가장 큰 평균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영어 학습 전략(F4)으로 나타나 교사의 생각에 비해 학습자의 영어 학습 전략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습자의 학습 신념과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영어 학습의 전략(F4)에 관한 요인만이 유의확률 .001로 학습자와 교사 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밖의 요인들인 영어 학습의 성격(F1),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영어 학습의 동기(F5)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 학습 전략(F4) 요인 중 오디오 교재의 유익성 및 모르는 어휘 추측하기 등에 있어 학습자와 교사 집단의 생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4.2.1 제 1요인: 영어 학습의 성격

<표 6>은 영어 학습의 성격에 관한 문항을 한데 묶어 표로 정리한 것인데, 학습자의 학습 신념과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이 많은 문항에서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학습자 신념과 교사 신념이 가장 유사한 응답을 보인 것은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 습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17번)를 묻는 문항과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필요로 하는지”(35번)를 묻는 문항으로 확인되어, Banya와 Cheng(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먼저 영어 학습에서 어휘 습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300명의 학습자 중 83%(247명)와 17명의 교사 중 82%(14명)가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어휘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습자 중 82%(245명)와 교사 중 83%(14명)가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많은 암기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분포를 분석해 볼 때, 학습자와 교사 대부분은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어휘 습득과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는 같은 구조의 언어라고 생각하는지”(32번)를 묻는 문항에 있어 학습자 중 74%(222명)가 영어와 한국어는 같은 구조가 아니라고 답하였으며, 17명의 교사 중 88%(15명)가 학습자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에 있어 14%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학습자와 교사의 거의 대부분은 영어와 한국어가 다른 구조를 가진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다른 교과목을 학습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27번)를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 중 68%(205명)와 교사 중 88%(15명)가 영어 학습은 수학이나 사회 등의 다른 교과목 학습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 문항에 따른 학습자와 교사의 응답률 차이는 20%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학습에 있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28번)”을 묻는 문항에 있어, 학습자의 83%(248명)가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교사의 61%(10명)가 학습자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 문항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응답률 차이는 22%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어에 있어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7번)를 묻는 문항에서는 학습자 중 71%(213명)가 영어의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교사 중 94%(16명)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분포로 보아 학습자와 교사 모두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정확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신념은 학습자보다 교사에게서 23%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영어 학습에서 정확한 영문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23번)를 묻는 문항에서는 학습자 중 54%(163명)와 교사 중 77%(13명)가 영어 학습에서 영문법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학습자와 교사의 절반 이상은 영어 학습에 있어 영문법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23%라는 약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신념은 학습자보다 교사의 인식에서 약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중에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영어 학습의 기초시기에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22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습자의 64%(192명)가 기초 때 실수를 바로 잡아주어야 훗날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교사의 35%(6명)만이 같은 의견을 나타내어 학습자와 교사의 응답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영어 습득을 위해 영미문화의 학습이 필요한지”(8번)를 묻는 것으로, 학습자의 57%(172명)가 영미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사는 94%(16명)가 영미문화 학습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영미문화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학습의 성격(F1)에 대한 문항 분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어휘습득과 암기의 중요성 및 영어와 한국어의 문장구조’에 대한 응답은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거의 일치하거나 아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영어 학습과 다른 교과목 학습과의 차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정확한 발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및 정확한 영문법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는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시기에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 영미 문화’에 대한 신념은 학습자와 교사 사이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기초시기에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있어서 학습자 신념보다 교사의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4.2.2 제2 요인: 영어 학습의 적성

<표 7>은 영어 학습의 적성에 관한 문항들을 정리한 것인데, 이 문항들에서도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는 것은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영어 습득은 잘 하지 못하는지”(11번)에 대한 문항으로 300명의 학습자 중 63%(189명)와 17명의 교사 중 65%(11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습자와 교사 모두 수학이나 과학의 자연계열의 학습 능력이 영어와 같은 어문계열의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 나이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1번)를 묻는 문항에 있어서는 학습자 중 78%(235명)와 교사 중 94%(16명)가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유리하다고 답하여, 응답률에 있어서 16%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의 상당수와 교사의 대부분은 나이와 영어 습득능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영어로 말할 때 자

신의 태도”(21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 48%(143명)의 학습자가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답하였으며, 29%(5명)의 교사가 같은 의견을 보여 응답률에 있어 1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습자의 절반 정도가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학능력시험 대비로 인해 학교에서 말하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신념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영어 학습과 다른 외국어 학습 간의 상관관계”(10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습자의 43%(128명)와 교사의 65%(11명)가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도 쉽게 배운다고 답해 두 집단의 응답률에 있어 22%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학습자와 교사의 절반 정도는 영어 학습과 다른 외국어 학습이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영어 학습 능력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19번)를 묻는 문항에는 학습자 중 단 17%(50명)만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어 습득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답하였으나, 교사는 47%(8명)가 그러하다고 답하여 영어 학습과 성별의 차이에 대한 신념은 학습자와 교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55%(164명)와 교사의 24%(4명)가 “자신은 특별한 영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16번)고 답하여, 학습자 신념과 교사 신념 응답률에 있어 31%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2번)를 묻는 문항에 있어 학습자의 59%(176명)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무려 교사의 94%(16명)가 그렇다고 답하여 학습자와 교사 신념의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념에 대한 학습자 응답을 자신에게 특별한 영어 학습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6번 문항의 응답과 비교해보면, 한국인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본인은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의 적성에 있어 학습자 신념과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 학습자들과 다른 나라 학습자들의 영어 습득 실력 비교”(6번)를 묻는 문항이었다. 응답 결과 23%(68명)의 학습자만이 한국 학습자들은 다른 나라 학습자들에 비해 영어 습득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교사의 78%(13명)가 같은 응답을 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에 있어 55%의 응답률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영어 학습의 적성(F2)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신념은 일치하는 문항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문항도 상당 수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자



연계열 과목이 영어와 같은 어문 계열 과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응답은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어 습득에 있어서 나이의 영향,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적극성, 영어 학습과 다른 외국어 학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는 학습자와 교사 사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어 학습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 및 자신이나 타인이 가진 영어 습득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한국 학습자와 다른 나라 학습자들의 영어 습득 실력 비교'에 있어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를 가장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과 '다른 사람과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만 교사의 인식과 비교하여 학습자의 신념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 4.2.3 제 3요인: 영어 학습의 용이성

<표 8>은 영어 학습의 용이성에 관한 문항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인데, 학습자 신념과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는 문항과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을 비교 및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영어의 활용 능력 중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을 비교하였을 때 어떤 것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지”(34번)를 물었을 때, 300명의 학습자 중 41%(124명)가 읽기 영역이 더 쉽다고 답하였으며, 17명의 교사 중 41%(7명)가 학습자의 의견과 같은 응답을 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와 교사 모두 영어를 받아들임(input)에 있어 말로 접하는 영어보다 글로 접하는 영어를 더 쉽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원인은 듣기나 말하기가 아닌 독해나 문법 위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현 고등학교 수업 환경 때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33번)에 대해 76%(228명)의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82%(14명)의 학습자가 같은 응답을 하여 영어 말하기 능력 습득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하는지”(4번)에 대한 문항에서는 학습자

의 55%(166명)가 영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답하였고, 교사의 41%(7명)가 그와 같이 응답하여, 영어 습득의 난이도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학습자와 교사의 응답률 차이는 14%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출력 능력 중 작문과 말하기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지”(25번)에 대해서는 53%(158명)의 학습자가 영어 작문과 비교하여 영어 말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였으며, 35%(6명)의 교사가 그와 같이 응답하여 18%의 응답률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작문과 말하기 난이도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이 비슷한 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자신에게도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5번)에 대해 학습자의 35%(106명)만이 자신의 영어 습득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교사의 77%(13명)가 그와 같이 응답하여, 영어 습득에 있어 자신의 잠재적 능력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항은 누구나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33번 문항, 자신에게 특별한 영어 습득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표 7>의 16번 문항과 연결 지어 봤을 때, 이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영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이지만, 영어 말하기는 누구나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어 습득에 대해 본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을 비교한 결과 ‘듣기 및 말하기와 읽기 및 쓰기를 비교한 난이도’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영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신념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습득의 난이도 및 작문과 말하기의 난이도 비교’에 대한 응답은 학습자와 교사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영어 습득에 대한 자신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는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꽤 큰 차이를 보였고, 상당수의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어 학습의 난이도’와 ‘작문과 말하기의 난이도 비교’에 있어서 학습자의 신념이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영어 습득에 대한 자신의 잠재 능력’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영어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는 교사의 인식이 학습자의 신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4 제 4요인: 영어 학습 전략

<표 9>는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문항들이다. 이 문항들을 분석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은 어떠한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반복 학습의 중요성”(18번)에 대해 300명의 학습자 중 96%(289명)가 영어 습득을 위해서 영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17명의 교사 중 100%(17명)가 학습자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9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 91%(274명)의 학습자와 100%(17명)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즉, 학습자와 교사 모두 비록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어로 말하는 것을 시도해보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오디오 교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26번)에 대해 학습자의 59%(177명)만이 카세트나 CD 같은 오디오 교재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다. 하지만 교사 중 83%(14명)가 영어 학습에 있어 오디오 교재의 유익성에 동의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응답률 사이에 24%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습자와 교사의 상당수는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오디오 교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르는 영어 어휘를 만나게 되면 추측해서 알고 하는지”(14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단지 61%(184명)의 학습자만이 영어 어휘를 모를 때 추측해서 알고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교사의 94%(16명)가 학습자와 같은 의견을 보여 모르는 영어 어휘의 추측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응답률 차이는 33%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Kern(1995)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모르는 어휘가 등장할 때 학습자들의 상당수가 그 어휘를 알고 하지 않거나 혹은 그 어휘를 알기 위해 문맥상 유추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그 어휘를 알고 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권 친구와 영어연습 하는 것을 즐기는지(13번)”를 물었을 때 학습자 중 63%(190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단지 교사의 6%(1명)만이 학습자와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에 있어 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학습 전략(F4)에 관한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신념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신념이 일치하는 항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상당 수 확인할 수 있었

다. 먼저 ‘영어 습득을 위한 반복 학습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갖지 못한 영어 말하기는 삼가야하는지’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오디오 교재의 유익함’과 ‘모르는 어휘는 추측해서 알려고 하는지’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영어권 친구와의 영어연습을 즐기는지’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신념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영어권 친구와의 영어연습을 즐기는지’에 대한 신념은 학습자의 신념이 교사의 학습자 신념 인식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신념들은 학습자의 신념보다 교사의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4.2.5 제 5요인: 영어 학습의 동기

<표 10>은 영어 학습의 동기에 관한 신념에 관한 것이다. 학습자와 교사의 영어 학습의 동기에 관한 신념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 300명의 94%(283명)가 “영어로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31번)고 답했으며, 교사 17명의 94%(16명)가 학습자와 같은 의견을 보여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권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는지”(24번)에 대해 64%(192명)의 학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59%(10명)의 교사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29번)를 물었을 때, 학습자 중 91%(274명)와 교사 중 100%(17명)가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20번)에 대해 학습자의 66%(199명)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교사의 59%(10명)가 학습자와 같은 응답을 하여, 학습자와 교사가 가진 신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관한 문항은 유일하게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인식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사는 학습자들은 모두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였고 실제 학습자의 신념과 일치하였다. 또한 영어를 배우는 가장 큰 동기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고 답하여 외적 동기로 인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 4.3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이 그들의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의 기말고사 성적을 활용하였다. 기말고사는 2012년 12월에 치러졌으며 자신의 성적 활용에 동의한 학생들은 총 300명 중 254명이었다. 기말고사 전체 평균은 43.7점이었으며, 성적 활용에 동의한 학생들의 기말고사 평균은 52.2점이었다. 이들의 영어 학습 신념과 영어 학습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영어 학습 신념과 영어 성취도의 상관관계

| 학습 신념 요인       | 기말고사 성적 | F1     | F2     | F3     | F4     | F5 |
|----------------|---------|--------|--------|--------|--------|----|
| 영어 학습의 성격(F1)  | -.061   |        |        |        |        |    |
| 영어 학습의 적성(F2)  | .137*   | .239** |        |        |        |    |
|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 .217**  | -.076  | .013   |        |        |    |
| 영어 학습 전략(F4)   | .190**  | .085   | .186** | .249** |        |    |
| 영어 학습의 동기(F5)  | .208**  | .015   | .199** | .299** | .197** |    |

\*  $p < .05$ , \*\*  $p < .01$

분석 결과 영어 학습 성취도는 영어 학습의 적성(F2,  $r = .137$ ),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r = .217$ ), 영어 학습 전략(F4,  $r = .190$ ), 영어 학습의 동기 요인(F5,  $r = .208$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학습 성취도와 상관이 높은 것은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영어 학습의 동기(F5),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적성(F2) 순이었다. 한편 영어 학습 성취도와 영어 학습의 성격(F1)은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학습 성취도는 영어 학습의 동기요인과의 상관관계만 유의하다고 밝힌 신의정(200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학습자들이 영어는 습득하기 쉬운 언어라고 생각하고 영어

를 학습하는 동기가 뚜렷한 학습자들은 입시나 취업과 같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므로 영어 학습 성취도 또한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영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에 비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잘 활용하여 높은 영어 학습 성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영어 학습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높은 자신감으로 인해 영어 학습 성취 또한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Ehrman과 Oxford(1995), Horwitz(1988), Mantle-Bromely(1995), Mory(1999), Park(1995), Peacock(1999, 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Kim(2001)과 Tanaka와 Ellis(200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영어 학습의 신념 요인별 상관관계에 있어서, 영어 학습의 성격(F1)과 영어 학습의 적성(F2)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어 학습의 용이성(F3)과 영어 학습 전략(F4) 및 영어 학습의 동기(F5)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로 보아 영어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는 “모르는 어휘를 추측”(14번)하거나 “반복 연습”(18번) 혹은 “오디오 교재를 통한 영어 학습”(26번)과 같은 영어 학습을 위한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영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뚜렷한 외재적 혹은 내재적 목표의식이나 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 학습의 적성(F2)과 영어 학습의 동기(F5)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이 영어 습득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16번)고 생각하거나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더 우수하다”(6번)고 믿는 것과 같은 영어 학습의 적성과 영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내재적 혹은 외재적 동기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영어 학습 전략(F4)과 영어 학습 동기(F5) 사이에도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거나”(31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영어를 학습”(29번)하는 동기가 “오디오 교재를 사용”(26번)하거나 “영어를 반복해서 연습”(18번)하는 등의 영어 학습을 위한 전략으로 이어짐을 추측할 수 있다.

영어 학습에 관한 다섯 가지의 신념 요인 중 다른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관한 요인으로, 이 세 가지 요인은 다른 모든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편 영어 학습의 성격(F1)과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의 관계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학습자가 가진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 학습의 성격(F1),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를 독립변수로 하고 기말고사 성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학습 신념 요인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
|                | 베타     |        |      |
| 영어 학습의 성격(F1)  | -.088  | -1.409 | .160 |
| 영어 학습의 적성(F2)  | .110   | 1.723  | .086 |
|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 .143   | 2.205  | .028 |
| 영어 학습 전략(F4)   | .117   | 1.829  | .069 |
| 영어 학습의 동기(F5)  | .122   | 1.882  | .061 |

$$R^2 = .099$$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가 느끼는 영어 학습의 난이도”(4번), “자신의 영어 습득 능력에 대한 평가”(5번), “영어 활용 능력의 난이도 비교”(25번, 34번) 등의 영어 학습의 용이성에 관한 신념은 학습자의 영어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시하거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영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라는 생각을 없애주고, 자신도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길러줌으로써 자신의 영어 학습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영어 학습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신념 요인의  $R^2$ 는 .099로서 영어 성취도가 영어 학습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약 10%만 설명해주고 있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에 관한 신념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인 영어 학습의 성격(F1),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 요인은 유의확률이 .05 이상으로 영어 학습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4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 신념의 차이

영어 학습 성취 수준 측정 도구인 기말고사 성적 활용에 동의한 학습자(n=254)는 상 수준 101명 중 94명, 중 수준 115명 중 98명, 하 수준 84명 중 62명이고, 이들의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은 상 수준 71.5점, 중 수준 52.1점, 하 수준 38점이다.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은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이용하여 학습자 신념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 신념 차이

| 학습자 신념 요인      | F    | 유의확률 |
|----------------|------|------|
| 영어 학습의 성격(F1)  | 2.67 | .071 |
| 영어 학습의 적성(F2)  | 4.13 | .017 |
|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 3.85 | .022 |
| 영어 학습 전략(F4)   | 3.24 | .041 |
| 영어 학습의 동기(F5)  | 4.41 | .013 |

분석 결과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가지며, 영어 학습의 성격(F1) 요인은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 일수록 자신이 영어 학습에 있어 남들과는 구별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으로 인해 영어 학습을 어렵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성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영어 학습 전략을 잘 세워서 학습할 것이며, 자신의 높은 영어 학습 성취 수준으로 인해 영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강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은 영어 학습 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영어 학습 성취 상 수준, 중 수준, 하 수준의 개개의 집단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해보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들을 분석해내기 위해 사후검정을 위해 Tukey 검정을 실시하여 <표 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5>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 영어 학습 신념 요인 차이에 대한 Tukey 검정

| 종속변수           | (I)성취도 | (J)성취도 | 평균차<br>(I-J) | 유의확률 |
|----------------|--------|--------|--------------|------|
| 영어 학습의 성격(F1)  | 상      | 중      | -.05         | .505 |
|                | 중      | 하      | -.07         | .383 |
|                | 하      | 상      | .12          | .383 |
| 영어 학습의 적성(F2)  | 상      | 중      | .15          | .015 |
|                | 중      | 하      | -.04         | .799 |
|                | 하      | 상      | -.11         | .124 |
|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 상      | 중      | .09          | .323 |
|                | 중      | 하      | .10          | .296 |
|                | 하      | 상      | -.19         | .016 |
| 영어 학습 전략(F4)   | 상      | 중      | .11          | .143 |
|                | 중      | 하      | .04          | .768 |
|                | 하      | 상      | -.16         | .043 |
| 영어 학습의 동기(F5)  | 상      | 중      | .15          | .096 |
|                | 중      | 하      | .08          | .586 |
|                | 하      | 상      | -.23         | .012 |

분석 결과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 신념 차이가 유의한 요인은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 요인이었으며, 영어 학습의 성격(F1)은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신념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었다.

영어 학습의 적성(F2) 요인에서 상 수준의 학습자와 중 수준의 학습자 간의 신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 수준의 학습자는 중 수준의 학습자에 비해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자신의 적성이나 습득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송고은(2013), Kim(2006b), Kym(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에 관련하여 상 수준의 학습자와 하 수준의 학습자 간의 신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 수준의 학습자는 하 수준의 학습자에 비해 영어를 습득하기 쉬운 언어라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 학습 전략(F4)에 있어 상 수준의 학습자와 하 수준의 학습자 간의 신념 차이가 유의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영어를 학습할 때 상 수준의 학습자는 하 수준의 학습자에 비해 모르는 어휘를 추측해서 알려고 한다든지 듣기 영역을 학습할 때 오디오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영어 학습 동기(F5)와 관련된 요인에서 상 수준의 학습자와 하 수준의 학습자 간의 유의한 신념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상 수준의 학습자는 하 수준의 학습자에 비해 영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내재적 혹은 외재적 동기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는 Kym(2008)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이용하여 35문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p < .05$ 인 문항은 총 8문항(2번, 5번, 16번, 24번, 26번, 28번, 32번, 35번)이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영어 학습의 성격(F1)에 관한 신념에 영향을 주는 항목 중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는 문항으로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28번),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32번), “영어 학습에 있어서 암기의 필요성”(35번)과 관련된 문항이었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영어 학습 성취도에 따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학습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영어 학습 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나누어진 학급에서 강조점을 두어 진행되는 수업의 형태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어 학습 성취도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나 암기의 필요성의 정도를 다르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테면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은 영어의 문장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 차이를 잘 인식하거나,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은 단어 암기에 초점을 둔 수업으로 인해 영어 학습은 많은 암

<표 16>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영향을 받는 영어 학습 신념 문항

| 학습자 신념                                    | F     | 유의확률 |
|---|-------|------|
| <b>영어 학습의 성격(F1)</b>                      |       |      |
| 28. 영어 학습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 8.67  | .001 |
| 32.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는 같다.                      | 3.48  | .032 |
| 35.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                   | 3.91  | .021 |
| <b>영어 학습의 적성(F2)</b>                      |       |      |
| 2.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 7.18  | .001 |
| 16. 나는 영어습득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          | 9.20  | .001 |
| <b>영어 학습의 용이성(F3)</b>                     |       |      |
| 5. 나는 영어를 남들만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2.11 | .001 |
| <b>영어 학습 전략(F4)</b>                       |       |      |
| 26. 오디오 교재(카세트, CD)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 .638  | .002 |
| <b>영어 학습의 동기(F5)</b>                      |       |      |
| 24. 나는 영어권 사람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 3.41  | .034 |

기를 요구한다고 느낄 것이다.

영어 학습의 성취 수준에 따라 영어 학습의 적성(F2)에 관한 신념 또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지”(2번)와 “자신은 영어 습득에 남다른 능력이 있는지”(16번)를 묻는 문항이다. 학습자의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특별한 영어 습득 능력에 관한 신념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고취된 자신감으로 인해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자신이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자신감 하락 및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특별한 영어 습득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에 관한 신념 중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 문항은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5번)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학습 성취도가 영어 학습의 적성에 관한 신념에 끼치는 영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어 학습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는 시험 결과에 따른 높은 자신감으로 인해 자신의 영어 습득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지만, 영어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 차이를 볼 수 있는 영어 학습의 전략(F4)에 관한 신념에 관한 문항은 “영어 습득에 있어 오디오 교재의 유익성”(26번)을 묻는 문항이었다. 영어 학습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들은 자신의 영어 성적이 높은 이유를 오디오 교재를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거나, 그 반대로 오디오 교재보다는 자막을 제거한 동영상 자료와 같은 비디오 교재를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오디오 교재는 유익하지 않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혹은 영어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들은 듣기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들을 수 있어 오디오 교재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관한 신념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으로는 “영어권 사람들을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지”(24번)를 묻는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취업이나 입시 등의 외재적 이유와 더불어 문화 학습에도 관심을 가져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거나 혹은 반대로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취업이나 입시 등에 초점을 두어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문화 학습에 관심을 가져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영어 학습 신념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영어 학습 성취 상 수준, 중 수준, 하 수준의 개별 집단이 영어 학습 신념에 관한 문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사후검정을 위해 Tukey 검정을 실시하여 <표 1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영어 학습의 신념 중 영어 학습의 성격(F1)에 관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28번)을 묻는 문항에 있어 상 수준의 학습자와 중·하 수준의

<표 17>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 영어 학습 신념 문항 차이에 대한 Tukey 검정

| 종속변수                                      | (I)<br>성취도 | (J)<br>성취도 | 평균차<br>(I-J) | 유의<br>확률 |
|---|------------|------------|--------------|----------|
| <b>영어 학습의 성격(F1)</b>                      |            |            |              |          |
| 28. 영어 학습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 상          | 중          | -.44         | .002     |
|   | 중          | 하          | -.08         | .827     |
|   | 하          | 상          | .52          | .001     |
| 32.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는 같다.                      | 상          | 중          | .04          | .927     |
|   | 중          | 하          | -.30         | .034     |
|   | 하          | 상          | .26          | .093     |
| 35.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                   | 상          | 중          | -.27         | .056     |
|   | 중          | 하          | -.05         | .919     |
|   | 하          | 상          | .31          | .034     |
| <b>영어 학습의 적성(F2)</b>                      |            |            |              |          |
| 2.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 상          | 중          | .48          | .001     |
|   | 중          | 하          | -.10         | .733     |
|   | 하          | 상          | -.38         | .023     |
| 16. 나는 영어습득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          | 상          | 중          | .32          | .024     |
|   | 중          | 하          | .24          | .153     |
|   | 하          | 상          | -.55         | .001     |
| <b>영어 학습의 용이성(F3)</b>                     |            |            |              |          |
| 5. 나는 영어를 남들만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상          | 중          | .33          | .009     |
|   | 중          | 하          | .26          | .075     |
|   | 하          | 상          | -.59         | .001     |
| <b>영어 학습 전략(F4)</b>                       |            |            |              |          |
| 26. 오디오 교재(카세트, CD)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 상          | 중          | .26          | .096     |
|   | 중          | 하          | .22          | .212     |
|   | 하          | 상          | -.48         | .001     |
| <b>영어 학습의 동기(F5)</b>                      |            |            |              |          |
| 24. 나는 영어권 사람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 상          | 중          | .32          | .052     |
|   | 중          | 하          | .00          | 1.000    |
|   | 하          | 상          | -.32         | .081     |

학습자의 신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념 차이의 원인은 학습 성취 수준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루어질 당시 상 수준의 학습자들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수업이 아닌 실제 미국의 아동문학을 수업 교재로 이용하여 이를 읽어가며 글의 전개를 유추하거나 앞으로의 내용을 암시하는 복선을 찾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읽기 활용 능력을 기르는 유형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CD를 이용하여 글의 내용을 듣고 받아쓰기 하는 활동을 통해 듣기 활용 능력을 기르고,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말하기 활용 능력을 기르며, 글의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등의 활동을 통한 쓰기 활용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가 이루어질 당시 중 수준이나 하 수준의 학습자들은 영어 지문을 읽고 한국어로 번역한 후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위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영어 학습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는 같은지”(32번)를 물었을 때 중 수준과 하 수준의 학습자의 신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 수준의 수업에서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며 더불어 문장의 주어와 동사 등의 구성요소를 찾고 수식어를 찾는 등 문장을 분석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 수준의 학습자는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는 같지 않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하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수업에서는 문장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어를 암기하고, 자신이 암기한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의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단순 번역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중 수준의 학습자와는 다른 신념을 갖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지”(35번)에 대한 문항에 있어 상 수준과 하 수준의 학습자의 신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신념차이의 원인 역시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수업은 단어 암기와 테스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은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상 수준의 학습자는 단순 암기가 아닌 글의 흐름을 파악하며 다음에 전개 될 내용을 유추하는 읽기 활동, 글의 내용을 듣고 받아쓰는 듣기 활동,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말하기 활동,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보

는 쓰기 활동 등 여러 가지 영어 활용 능력을 두루 학습할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영어 학습에 있어 암기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였을 것이다.

영어 학습의 신념 중 영어 학습의 적성(F2)에 관한 문항에 있어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2번)를 묻는 문항과 “자신이 가진 남다른 특별한 영어 습득 능력”(16번)에 대한 문항은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문항의 공통점은 영어 습득 능력에 대한 항목이라는 것인데,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로 밝혀진 결과 두 문항 모두 상 수준과 중·하 수준 학습자의 신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 수준의 학습자는 중·하 수준의 학습자보다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자신이 바로 그 특별한 영어 습득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는 상 수준 학습자가 높은 영어 학습 성취도로 인하여 갖게 된 신념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중·하 수준의 학습자는 학습 능력 성취가 남들만큼 미치지 못함에 따른 자신감 하락으로 빚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이 높으면 영어 습득 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ser(2012)의 연구에서는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상·하 수준 학습자와 중 수준 학습자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에 관한 신념 중 “자신이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5번)에 대해 영어 학습 성취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5번 문항은 자신의 남다른 특별한 영어 습득 능력을 묻는 16번 문항과 같이 자신의 영어 습득 능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 상 수준 학습자의 신념은 중·하 수준의 학습자의 신념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상 수준의 학습자들은 자신도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하 수준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영어 습득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학습 전략(F4)에 관한 신념에 관한 항목에서도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유의한 문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세트나 CD와 같은 오디오 교재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26번)에 대해 상 수준 학습자의 신념과 하 수준 학습자의 신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 수준의 학습자는 하 수준의 학습자에 비해 영어 학습에 있어 오디오 교재의 유익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상 수준의 학습자는 영어로 쓰인 아동 문학을 배우며 글의 내용을 CD를

통해 듣고 받아쓰기를 하거나 영어 연설문을 듣고 이해하는 등의 듣기 활용 능력 수업을 통해 이와 같은 신념을 갖게 되었으나, 하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유형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디오 교재의 유익성에 대한 신념에 있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 수준의 학습자는 영어 학습 시에 다른 학습자들보다 오디오 교재를 많이 이용하여 학습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영어 학습 동기(F5)에 관한 신념을 묻는 문항은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ANOVA에 이용된 연구 참여자의 수는 254명 이지만 Tukey 검정에서는 상 수준, 중 수준, 하 수준으로 분류된 연구 참여자 숫자가 더 적고,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있어 영어 성취 수준에 상관없이 많은 학습자들이 같은 신념을 공유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 5.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관한 신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교사의 신념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그들의 학습 신념은 영어 학습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신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Horwitz의 BALLI를 수정한 35개 문항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영어 학습의 성격(F1), 영어 학습에 대한 적성(F2),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라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에 해당하는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을 알아보았다.

먼저 첫 번째 연구과제인 영어 학습에 대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신념 중 영어 학습에 성격(F1)에 대한 신념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영문법보다 어휘와 번역에 비중을 두어 학습하며 의사소통을 위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자 하며 단어나 숙어 등을 암기하기 위해 노력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영어 학습의 적성(F2)에 대한 신념에 있어 많은 학습자들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단지 극소수의 학습자만이 그 특별한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답해 자신의 영어 학습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에 대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신념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누구에게나 영어로 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정작 자신이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습자는 많지 않아 자신의 영어 습득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영어 학습 전략(F4)에 대한 신념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비록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영어 학습을 위해 노력을 우선으로 꼽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관한 신념에 있어서 학습자의 대부분은 입시나 취업 등의 도구적인 동기로 인하여 영어를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연구과제인 학습자와 교사의 영어 학습에 관한 신념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신념이 일치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상당 수 찾아 볼 수 있었다. 먼저 영어 학습의 성격(F1)에 대한 신념에 있어 풍부한 어휘 습득의 중요성(17번)과 암기의 필요성(35번)에 있어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였고, 기초 때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의 중요성(22번)과 영미 문화 학습의 중요성(8번)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신념이 차이를 보였다. 영어 학습의 적성(F2)에 있어 학습자와 교사 모두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영어 습득 또한 잘한다(11번)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2번), 한국 학습자들과 다른 나라 학습자들의 영어 습득 실력의 비교(6번)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신념이 일치하지 않았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을 비교한 결과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의 난이도 비교(34번), 누구나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가능성(33번)에 있어 두 집단의 신념이 일치하였으나, 남들만큼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5번)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신념이 차이를 보였다. 영어 학습 전략(F4)에 관한 신념에 있어 영어 습득을 위한 반복 학습의 중요성(18번),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한다(9번)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였으며, 영어권 친구와의 영어연습을 즐기는지(13번)에 있어서 두 집단의 신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관한 문항은 유일하게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신념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영어 학습 성취도는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념 요인별 상관관계에 있어서, 영어 학습의 성격(F1)과 영어 학습의 적성(F2)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영어 학습의 용이성(F3)과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 간 상관관계 또한 높았다. 그리고 영어 학습의 동기(F5)와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의 전략(F4)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학습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신념 요인을 조사한 결과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의 적성(F2),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영어 학습 전략(F4), 영어 학습의 동기(F5) 요인은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영어 학습 신념 문항을 조사

한 결과 영어 학습의 성격(F1)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28번),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 차이(32번),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암기의 필요성(35번)에 관한 문항이었고, 영어 학습의 적성(F2)에 있어서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2번), 자신이 가진 특별한 영어 습득 능력(16번) 문항으로 밝혀졌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에 있어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5번)에 관한 문항, 영어 학습 전략(F4)에 있어 오디오 교재의 유익성(26번), 영어 학습의 동기(F5)에 있어 영어권 사람들을 더 잘 알기 위함(24번)에 관한 문항이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영향을 받는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영어 학습 신념 문항 중 영어 학습 성취 수준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은 총 여섯 문항이었다. 먼저 영어 학습의 성격(F1)에 있어 번역의 중요성(24번) 문항은 상 수준 학습자와 중·하 수준 학습자의 신념 차이가 나타났으며, 암기의 필요성(35번)에 있어서 상 수준 학습자와 하 수준 학습자의 신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학습의 적성(F2) 중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2번), 자신이 가진 특별한 영어 습득 능력(16번) 문항에 있어 상 수준과 중·하 수준 학습자의 신념 차이가 유의하였다. 영어 학습의 용이성(F3) 중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5번)에 관한 문항에서 상 수준 학습자와 중·하 수준 학습자의 신념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영어 학습 전략(F4)에 있어 오디오 교재의 유익성(26번)을 묻는 문항에서 상 수준 학습자와 하 수준 학습자의 신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영어 학습 동기(F5)는 영어 학습 성취 수준 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5.2 교육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EFL 학습자로서 고등학생의 학습 신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는 교사의 신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신념이 그들의 영어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영어 학습 신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도 영어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화석화에 대한 두려움과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

습자들이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반복 연습을 통해 소극적인 태도를 타파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특히 교사는 학습자에게 잘못된 학습으로 인한 화석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습 초기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중요하며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이유로 입시나 취업을 꼽고 있는데, 이는 철저히 외재적이고 도구적인 동기로서 영어를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영어 학습은 강압적이고 입시 위주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신념 요인을 활용해 지도할 수 있다. 학업 성취가 낮은 학습자들은 학업 성취가 높은 학습자에 비해 오디오 교재의 사용과 같은 영어 학습의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교사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습자에게 오디오 교재의 유익함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시간에 오디오 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은 영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이며 누구나 영어로 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지만 자신은 남들만큼 잘 습득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념은 학업 성취가 높은 학습자보다 학업 성취가 낮은 학습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 자료나 학업 성취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영어 학습에 있어 성취감을 맛보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가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광주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학습자들과 그들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 대상이 좁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습자에 비해 교사 참여자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과 교사 참여자 수의 부족으로 인해 교사 자료를 분리하여 요인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

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명한 학급에 비해 그렇지 못한 학급의 학습자들은 설문 문항을 잘 이해하고 응답했는지 알 수 없으며,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문 도중 그들을 자세히 관찰하지 못해 참여자가 성실하게 설문에 임했는지도 알 수 없다.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영어 학습 성취도 측정 도구로서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활용한 것은 타당하나, 학습자의 영어 학습 성취도 측정이 일회로 그친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타당도는 적절하나,  $R^2=.099$ 로서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약 10%에 불과하여 학습자의 영어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5.4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의 한정성을 피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한 개 학교의 학습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학교의 학습자로 확대하고,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신념의 차이를 조사하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신념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교사 참여자의 수를 늘려 이들의 자료를 요인분석하고, 피실험자의 설문 조사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참여의 성실성과 관련된 제한점들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학습자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터뷰를 추가하여 두 집단의 신념을 뒷받침 해주는 의견을 보완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를 더욱 명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인터뷰 자료를 분리하거나 학업 성취도 측정을 수차례 시행하여 학습자의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학습자 뿐 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에 관한 그들의 신념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각 급 학교에 따른 학습자의 신념 차이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 5.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EFL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가진 학습 신념과 그들의 영어교사가 인식하는 학습자의 학습신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신념 차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신념 연구를 통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습자들의 생각이나 학습유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가 가진 학습 신념에 대한 인식과 실제 학습자가 가진 학습 신념 비교를 통하여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습자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자의 영어 학습 신념이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교사는 학습자의 영어 학습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신념을 길러주면 학습자의 영어 학습 성취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영어 학습 신념에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습자가 속한 성취 수준별 집단의 신념을 잘 이해하면 교사는 수준별 수업을 더욱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자. (2011). 영어학습에 대한 신념체계와 영어성취도와의 구조모형.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6(2), 25-47.
- 김준호. (1999). 대학생의 영어학습 영향요인(신념)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5, 55-87.
- 남정미. (2013). 대학생들의 영어학습 신념과 영어성취도 점수와의 관계분석. *새한 영어영문학*, 55(4), 161-179.
- 대성학력개발연구소. (2009). 2학년 5월 모의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외국어(영어)영역. 대성학력개발연구소.
- 박찬규. (2005).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과 학습신념의 차이 비교. *영어영문학 연구*, 31(2), 173-199.
- 박형기. (1986). 영어 학습의 성공 및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32, 3-40.
- 송고은. (2013). 영어학습전략과 신념이 수행능력이 미치는 상관관계 분석-영어전공과 타전공대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2), 491-519.
- 신의정. (2002). *외국어 학습 전략 훈련이 학습전략 활용, 학업성취도 및 학습신념에 미치는 효과*.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오준일. (1992). 대학생의 외국어 학습에 관한 신념. *영어교육*, 44, 23-48.
- 천호재. (2008).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교사의 일본어학습 및 교수법에 대한 신념 비교. *일본학연구*, 24, 411-428.
- Abraham, R. G., & Vann, R. (1987). Strategies of two language learners: A case study. In A. L. Wenden & J.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85-102).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len, L. Q. (2002). Teachers' pedagogical beliefs and the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35, 518-529.
- Amy B. M. Tsui (2003). *Understanding expertise in teaching: Case studies of second language teach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hn, B.-k., & Yang, M.-w. (2009). Korean university student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heir use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Studies 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5, 249-276.

- Bailey, K. (1983). Competitiveness and anxiety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Looking at and through the diary studies. In H. Seliger & M. Long (Eds.), *Classroom-oriented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67-102). Rowley, MA: Newbury House.
- Banya, K., & Cheng, M. H. (1997, March). *Beliefs about foreign language learning: A study of beliefs of teachers' and students' cross cultural setting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Orlando: FL.
- Bialystok, E. (1978). A theoretical model of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8*, 69-83.
- Bernat, E. (2004). Investigating Vietnamese ESL learn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The English Australian Journal, 21*(2), 40-54.
- Bolton, K. (2008). English in Asia, Asian Englishes, and the issue of proficiency. *English Today, 94*, 3-12.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hin, C. (2002).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perceptions of learning and teaching EFL in Korea. *English Teaching, 57*, 113-135.
- Clark, C. M., & Peterson, P. L. (1986). Teachers' thought processes. In M. C.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f teaching* (3rd ed.) (pp. 255-296). New York: Macmillan.
- Diab, R. L. (2006). University students' beliefs about learning English and French in Lebanon. *System, 34*, 80-96.
- Dörnyei, Z. (1998). Motivation in action: A process model of L2 motivation. *Working Papers in Applied Linguistics, 4*, 43-69.
- Drum, R. L. (1984). *A survey of teachers' opinions and practices regarding the teaching solving skill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 Corpus Christi University, TX.
- Ehrman, M. E., & Oxford, R. L. (1995). Cognition plus: Correlate of language learning succes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9*, 67-89.



- Ellis, R. (1994). *The studie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ryok, A. (2008). An Armenian English language teacher's practical theory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System*, *36*, 227-240.
- Flavell, J.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 906-911.
- Gardner, R.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 Gibson, S., & Dembo, M.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Educational Psychology*, *76*, 569-582.
- Bagherzadeh, H., & Azizi, Z. (2012). Learners' beliefs about English language learning: Examining the impact of English proficiency level on the motivation of students among non-English major EFL students.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2*, 2906-2102.
- Horwitz, E. K. (1985). Using student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the foreign language methods course. *Foreign Language Annals*, *18*, 333-340.
- Horwitz, E. K. (1987). Surveying student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 A. L. Wenden & J.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119-129).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rwitz, E. K. (1988). 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beginning university foreign language student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2*, 83-294.
- Horwitz, E. K. (1990). Attending to the affective domain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In S. S. Magnan (Ed.), *Shifting the instructional focus to the learner* (pp. 15-33). Middlebury, VT: Northeast Conference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 Horwitz, E. K. (1999). Cultur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foreign language learn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BALLI studies. *System*, *27*, 557-576.
- Horwitz, E., Horwitz, M., & Cope, J. (1986). Foreign language classroom

- anxiet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 125-132.
- Huang, S. C., & Tsai, R. R. (2003). *A comparison between high and low English proficiency learners' belief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82 579)
- Johnson, K. E.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s during literacy instruction for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4, 83-108.
- Kern, R. G. (1995). Students; and teach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18, 71-92.
- Kim, H. J. (2001).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learning styles, and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5, 31-46.
- Kim, K. J. (2006a). The English about language learning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d their teach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1-24.
- Kim, K. J. (2006b). Language learning beliefs in relation to English proficiency: A Korean sample. *English Teaching*, 61(4), 27-50.
- Kim, K. J. (2013). The effect of learner beliefs on the structural model of English achievemen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3), 181-195.
- Kim, K.-Y. (2001). Korean college student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heir use of learning strategies. *Studies in Modern Grammar*, 26(4), 197-213.
- Kim, S. (2011). Exploring native speaker teachers' beliefs about learning and teaching English. *English Teaching*, 66(2), 123-148.
- Kim, S.-Y. (2009). Questioning the stability of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and motivation across different classroom context. *Foreign Language Annals*, 42, 138-157.
- Kim-Yoon, H. O. (2000). *Learner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nd their relationship: A Study of EFL learner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Kym, I. (2008). Motivational structures among learners with different levels of L2 proficiency: The case of Korean young learners of English. *English Teaching*, 63(1), 101-129.
- Lee, E.-H. (2010). Korean college students' beliefs about English language learning.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54, 161-180.
- MacIntyre, P. D., Baker, S. C., Clément, R., & Conrod, S. (2001). Willingness to communicate, social support, and language-learning orientations of immersion students. *Studi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 369-388.
- MacIntyre, P. D., & Gardner, R. C. (1989). Anxiet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oward a theoretical clarification. *Language Learning*, 39, 252-275.
- Mantle-Bromley, C. (1995). Positive attitudes and realistic beliefs: Links to proficienc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9, 372-386.
- McGroarty, M., & Oxford, R. (1990). 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Overview and two related studies. In A. Padilla, H. Fairchild, & C. Valadez (Eds.),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sues and strategies* (pp. 56-74). Newbury Park, CA: Sage.
- Mori, Y. (1999).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ability to integrate information from word parts and context in interpreting novel Kanji word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3, 534-547.
- Moser, E. (2012). *ELL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by proficiency level: A cross-sectional study of adult educatio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New Britain.
- Naiman, N., Frohlich, M., Stern, H., & Todesco, A. (1978). *The good language learner*. Toronto: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Oxford, R., & Nyikos, M. (1989). Variables affecting choice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by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7, 11-22.
- Oxford, R., & Shearin, J. (1994).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Expanding the

- theoretical framework.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8, 12-28.
- Pappamihel, N. E. (2002).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students and English language anxiety: Issues in the mainstream classroom.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36, 327-355.
- Park, G.-P. (1995). 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English in Korea. *English Language Teaching*, 4, 179-200.
- Peacock, M. (1998). Exploring the gap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beliefs about useful activities for EFL.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8, 233-250,
- Peacock, M. (1999).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heir relationship to profici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9, 247-265.
- Peacock, M. (2001). Match or mismatch? Learning styles and teaching styles in EFL.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1, 1-20.
- Piper, M. L. (1994). Ecologia: The assumption, expectations and strategies of modern languages students working in a self-across learning environment for the first term. *Language Awareness*, 3, 11-27.
- Richards, J., & Lockhart, C. (1994). *Reflective teaching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on, V.(1996). The role of attitudes and beliefs in learning to teach. In J. Sikula, T. J. Buttery, & E. Guyton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2nd ed.) (pp. 102-119). New York: Macmillan.
- Rifkin, B. (2000). Revisiting beliefs about foreign languag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33, 394-420.
- Samimy, K. K., & Lee, Y. (1997).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Perspectives of first-year Chinese learners and their instructors. *Journal-Chinese Language Teachers Association*, 32, 40-60.
- Sandra, G. K., Nathalie, A. P., & Robert, D. R. (2009).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ly constructed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nd beliefs. *Foreign Language Annals*, 42, 287-317.
- Shim, J.-W. (2006). Validation of dimensions of teacher efficacy beliefs specific to non-native Korean teachers of English. *Studies 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2(2), 207-224.

- Siebert, L. L. (2003). Student and teacher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The ORTESOL Journal*, 21, 7-39.
- Simon, E., & Taverniers, M. (2011). Advanced EFL learn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A comparison between grammar, pronunciation, and vocabulary. *English Studies*, 92, 896-922.
- Tanaka, K., & Ellis, R. (2003). Study abroad, language proficiency, and learner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JALT Journal*, 25, 63-85.
- Truitt, S. (1995).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English. *Texas Paper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 1-14.
- Wenden, A. (1986). What do second-language learners know about their language learning?: A second look at retrospective accounts. *Applied Linguistics*, 7, 186-205.
- Wenden, A. (1987). How to be a successful language learner: Insight and prescriptions from L2 learners. In A. L. Wenden, & Joan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102-117). NJ: Prentice-Hall International.
- Wenden, A. (1999). An introduction to metacognitive knowledge and beliefs in language learning: Beyond the basics. *System*, 27, 435-442.
- White, C. (1999). Expectations and emergent beliefs of self-instructed language learners. *System*, 27(4), 543-558.
- Yang, N. D. (1992). *Second language learn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heir use of learning strategies: A study of college students of English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부록 1. 학습자 신념 조사 설문지

다음 설문지의 항목들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습득에 대한 신념에 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아래 문항들에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알맞은 번호를 골라 각 문항 앞의 빈칸에 써 넣어주세요.

이 설문지는 영어 습득의 신념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 동의하지 않는다

3 = 잘 모르겠다

4 = 동의한다

5 = 매우 동의한다

- \_\_\_\_\_ 1. 영어는 어른보다 아이가 쉽게 습득한다.
- \_\_\_\_\_ 2. 영어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 \_\_\_\_\_ 3. 영어습득이 다른 외국어 습득보다 쉽다.
- \_\_\_\_\_ 4. 영어는 습득하기 (1) 매우 어려운 언어 (2) 어려운 언어  
(3) 보통인 언어 (4) 쉬운 언어 (5) 매우 쉬운 언어이다.
- \_\_\_\_\_ 5. 나는 영어를 남들만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_\_\_\_\_ 6. 한국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영어습득을 잘 한다.
- \_\_\_\_\_ 7. 영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_\_\_\_\_ 8. 영어습득을 위해서는 영미문화를 알아야 한다.
- \_\_\_\_\_ 9.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_\_\_\_\_ 10.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도 쉽게 배운다.
- \_\_\_\_\_ 11.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영어습득에는 약하다.
- \_\_\_\_\_ 12. 영어는 영어권 나라에서 가장 잘 습득될 수 있다.
- \_\_\_\_\_ 13. 나는 영어권 친구와 영어연습 하는 것을 즐긴다.
- \_\_\_\_\_ 14. 나는 영어 어휘를 모를 때 보통 추측해서 알려고 한다.

- \_\_\_\_\_ 15.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 1시간 영어공부를 한다면 영어를 잘 말하게 될 때까지 (1) 1-2년 (2) 3-5년 (3) 6-10년 (4) 10년 이상 걸린다  
(5) 결코 영어를 습득할 수 없다.
- \_\_\_\_\_ 16. 나는 영어습득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
- \_\_\_\_\_ 17.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 습득은 중요하다.
- \_\_\_\_\_ 18. 영어습득을 위해 영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 \_\_\_\_\_ 19.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어습득에 유리하다.
- \_\_\_\_\_ 20.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_\_\_\_\_ 21. 나는 다른 사람과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 \_\_\_\_\_ 22. 기초 때부터 영어 실수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 \_\_\_\_\_ 23. 영어 학습에서 영문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 \_\_\_\_\_ 24. 나는 영어권 사람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 \_\_\_\_\_ 25. 영어로 작문하는 것보다 영어 말하기가 더 쉽다.
- \_\_\_\_\_ 26. 오디오 교재(카세트, CD)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 \_\_\_\_\_ 27. 영어 학습은 다른 교과목 (수학, 사회)학습과 다르다.
- \_\_\_\_\_ 28. 영어 학습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 \_\_\_\_\_ 29.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 \_\_\_\_\_ 30. 2개 국어 이상을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 \_\_\_\_\_ 31. 나는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 \_\_\_\_\_ 32.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는 같다.
- \_\_\_\_\_ 33. 누구나 영어 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다.
- \_\_\_\_\_ 34. 영어 학습에 있어 듣기 영역보다 읽기 영역이 더 쉽다.
- \_\_\_\_\_ 35.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

## 부록2. 학습자 인적 사항 검사지

아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해당사항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세요.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아래 문항들은 영어 습득의 신념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자료 중 인구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절대 외부로 누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각각의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 학습자 인적 사항 검사

2학년 (      )반 (      )번    이름 :

1. 나의 나이는 만 \_\_\_\_\_ 세 이다.
  
2. 나는 : (1) 남자            (2) 여자
  
3. 나는 평균적으로 영어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영어를 \_\_\_\_\_ 시간 공부한다.  
(1) 3시간 미만    (2) 3-5시간    (3) 6-8시간    (4) 9-11시간    (5) 11시간 이상
  
4. 다른 학생들과 비교 했을 때, 나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은 :  
(1) 아주 열등하다            (2) 좋지 않다            (3) 중간이다  
(4) 좋은 편이다            (5) 아주 좋다



5. 나의 영어 습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 (1) 학교 선생님          (2) 학원 및 과외, 인터넷 강의          (3) 참고서  
(4) 자율학습          (5) 기타 (                                  )

6. 영어로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의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 영어 습득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 (1) 영어독해          (2) 영미문화          (3) 듣기 및 말하기  
(4) 영문법              (5) 영작문

### 부록 3. 교사 인적 사항 검사지

아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해당사항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세요.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아래 문항들은 영어 습득의 신념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자료 중 인구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절대 외부로 누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각각의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 교사 인적 사항 검사

1. 나의 나이는 만 \_\_\_\_\_ 세 이다.
  
2. 나는 : (1) 남자            (2) 여자
  
3. 영어교사로서 나의 경력은 \_\_\_\_\_ 이다.  
(1) 1년 미만    (2) 2년-5년    (3) 6년-10년    (4) 11-15년    (5) 16년 이상
  
4. 우리학교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전반적으로:  
(1) 아주 열등하다            (2) 좋지 않다            (3) 중간이다  
(4) 좋은 편이다            (5) 아주 좋다
  
5. 내가 생각하기에 영어 학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 학교 선생님            (2) 학원 및 과외, 인터넷 강의            (3) 참고서  
(4) 자율학습            (5) 기타 (            )

6. 영어로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의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 영어 습득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 (1) 영어독해      (2) 영미문화      (3) 듣기 및 말하기  
(4) 영문법      (5) 영작문

#### 부록 4. 반구조화 인터뷰 문항

1. 영어 습득과 연령 및 성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2. 자신이 가진 영어 습득 능력에 대해서
3. 영어를 학습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단어, 영문법, 번역, 문화)에 대해서
4. 영어가 다른 과목 혹은 다른 외국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5. 영어를 학습하는 자신만의 학습 방법 혹은 전략에 대해서
6. 영어 네 가지 활용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난이도에 대해서
7.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8. 영어를 말할 때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9. 영어를 학습할 때 반복 연습 및 암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10. 영어 학습 초기의 실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